

한국 증시, 3400 시대 개막 정책·유동성·외인매수 삼박자

정부 대주주 과세기준 50억 유지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추진
美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도 확산
이달 외국인 5조 이상 순매수
AI 혼풍에 삼성·하이닉스 신고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고, 추가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영향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유동성 확대) 가능성, 미국발 반도체 혼풍,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란 호재도 살아 있다. <관련기사 3면>

15일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5% 오른 3407.31으로 장을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점이다. 외국인이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에는 '팔자'였던 외국인인은 이달 매수로 전환한 뒤 이날까지 5조487억원가량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도 약 2800조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신천지를 여는 데는 시장 친화정책이 컸다.

정부는 이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올해 7월 관련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약'에 참석해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증시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을 넘어선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11.77 포인트(0.35%) 오른 3407.31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증시 활성화 대책도 내놴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금(BDC) 도입을 지원한다. BDC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도 있다. 11일(현지 시간) 8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전망치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장에선 이번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내 3번 인하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연준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하면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이 커진다. 미국 투자자 로선 환율 변동에 따

른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해외 주식에 투자할 유인이 늘어난다.

미국에서 불어 온 인공지능(AI) 혼풍도 증시에 호재다. 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오라클은 2분기(4~6월) 매출의 30배 수준의 계약잔고를 발표하며 클라우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함을 증명했다. 이날 삼성전자(1.46%)와 SK하이닉스(0.76%)는 나란히 증시를 견인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34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가를 거듭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도 장중 52주 신고가(7만7600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증시 추가 상승의 동력을 기업에서 찾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속성과 추가 상승은 거시경제 호전과 실적 추정치 상향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D램·낸드 공급부족 온다 삼성·SK, 실적개선 국면

HBM 증설 집중, 범용 메모리 타격
낸드·D램가격 반등, 업황회복 가속
차세대 HBF시장 선점 경쟁도 확대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모리 슈퍼사이클 재현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026년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인공지능(AI) 시장의 수요 강세에 힘입어 공급 부족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투자 금융 회사 씨티그룹은 내년 D램과 낸드플래시의 공급 물량이 각각 수요 대비 1.8%, 4%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HBM 생산능력 확대에 설비 투자를 집중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 증설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업황 개선이 실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 2분기 기준 점유율은 삼성전자 32.9%, SK하이닉스 21.1%를 기록했다.

제품 가격 상승 또한 업황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낸드시장은 2021년 메모리 초호황 시절을 지나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과 PC시장의 침체로 인해 2022년부터 지난해 전반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러나 같은 년도 하반기부터 주요 공급업체들의 전략적 생산 조정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낸드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비트 공급 증가율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올해 2분기부터는 재고가 점차 감소했으며 PC 및 스마트폰 등 주요 제조업체들의 수요가 회복됐다. 이에 D램과 낸드 가격은 각각 전분기 대비 5~10%, 3~8%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낸드의 차세대 제품인 고대역폭낸드플래시(HBF)의 구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BF는 HBM과 같이 낸드를 수직으로 쌓은 고성능 반도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차세대 낸드 시장 선점을 위해 샌디스크와 HBF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범용 D램 생산능력을 경쟁사 대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까지 평택 제4캠퍼스(P4)에 내년 초까지 1c(6세대 10나노급) D램용 설비 투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P4는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 팹으로 총 4개의 페이스(ph)로 나뉜다. 회사는 낸드와 D램 양산을 범용하는 하이브리드 라인 ph1과 D램 양산 라인인 hp3에 설비투자를 완료했다. 현재 hp4에도 D램 설비투자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HBM 업황이 둔화될 전망이나 경기 침체가 없다면 D램, 낸드 모두에서 업계 생산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구형 D램과 낸드 업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공사비 급등에 분상제 단지 분양가 인상 예고

코로나 이후 공사비 22% 급등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 개정

시세 대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도 분양가가 뛴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공사비가 뛰면서 최근 5년간 2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정기고시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직전 고시된 m²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상승했다. 3.3m²(1평) 당 717만

4200원 꼴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16~25층, 전용 60m² 초과~85m²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와 함께 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본격 상승한 것은 2020년 하반기부터다. 지난 2020년 3월 m²당 178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 무려 22.1%(178만원→217만4000원)나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추석 민생 안정대책당정협의회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량 대폭 확대
할인지원 사업 500억 역대최대 투입

당정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7~20%로 확대해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을 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 원 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 민생·경제를 흐트러짐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에 정책위의장 등 당의 정책 중역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조은희 “한류 돌풍, 국내산업·창작자 권익 환류되는 IP 기반 마련해야”
▲우원식, 현재 사무처장 접견… “개헌으로 새 시대상 담아내야”
/사진 뉴시스

▲강훈식 비서실장 “추석 정전 없도록 철저히 대비… 전력 안정화 대책 마련도”
▲서왕진 “국힘은 내란 옹호 세력… 제도권 바깥으로 몰아내야”

▲이석연 통합위원장 “국정운영, 與논리로만 할 수 없어… 모두의 대통령 돼야”
▲임이자, 대정부질문서 “李 탄핵안 발의하라”… 與 “대선불복” 고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인 활동 발목, 낡은규제 혁신 처벌중심의 조향 대대적 손볼 것”

李 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런 것들을 이번엔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산업·민생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으로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주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는,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규제들을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다. 또 정부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르다”면서 “규제들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이런걸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데이터·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성장 막는 규제 논의
산재시 엄청난 과징금 때리고 기업인 투자 제한 배임죄 개선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게 목표

이어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배임죄 등 처벌 조항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내면, 보통 우리는 처벌

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배상하지 않나”라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아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러니 최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기업들한테 그제 훨씬 더 (타격이) 크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배임죄를 두고는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런다.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한국은 기업인)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하고 배임죄로 기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유죄 나서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위협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현대건설, 이라크서 4조 해수플랜트 공사 수주

가스개발 통합 프로젝트 일환 진행
이라크 국가재정 확충 기여 클 듯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4조원 규모의 해수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위치한 이라크 총리실에서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해수공급 시설(WIP·Water Infrastructure Project)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플랜트 공사는 이라크 내 ▲가스 ▲석유 ▲태양광 ▲해수 처리 등 가스 개발 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대건설이 수행하는 WIP 프로젝트는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하루 500만 배럴 용량의 용수 생산이 가능한 해수 처리 플랜트를 건설하는 공사다. 이곳에서 생산된 용수는 이라크 바스라 남부에 위치한 웨스트 쿠르나, 남부 루마일라 등 이라크 대표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사용된다.

플랜트 공사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 석유회사, 카타르 국영 석유기업인 카타르 에너지가 공동 투자하는 사업형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9개월이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권인 이라크는 국가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WIP는 2030년까지

현재 하루 420만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800만배럴까지 증산하기 위한 이라크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이라크 내 원유 생산량 증가는 물론 국가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전쟁과 코로나19 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오랜 기간 책임감 있게 주요한 국책 공사를 수행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한 현대건설에 대한 굳건한 신뢰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에도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발주될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원 기자 jiw13@

소상공인에 명절자금 43조 2차 소비쿠폰 10만원 지급

>> 1면 ‘지역사랑상품권 최대...’서 계속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회

이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며 “당은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책도 소홀히 다루지 않겠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 사랑 상품권의 정책 효과가 소상공인까지 고루 닿도록 살피겠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페이백이나 특별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 자금은 명절 전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저희는 세가지 대책을 준비했다. 첫째, 9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국민 90%께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현행 5~10%에서 7~20%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10조원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으로 43조2000억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내용

- 성수품 물가안정**
 - 성수품 최대 17.2만톤 공급(평시의 1.6배 규모)
 - 농산물 2.6배, 축산물 1.3배, 수산물 2배 등
 - 성수품 할인 지원 예산 900억원 편성
 - 선물세트 등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 쌀 수급 안정
 - 정부양곡 5.5만톤 공급
-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시행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할인율 증가
 - 숙박시설 할인쿠폰 15만장 발행
 - 7만원 이상→5만원, 7만원 미만→3만원 할인
 -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연휴기간 문화·휴양시설 무료개방
- 민생부담 경감**
 - 43.2조원 규모 대출·보증 공급
 - 61조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 연장
 - 서민·취약계층·청년층 정책금융 1445억원 공급
 - 햇살론유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대금 저금리 지원
 - 중소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 납부유예

국민안전

- 교통·의료 등 24시간 안전관리체계 가동
-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적 열망 고려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

추석기간 24시 안전관리 체제 가동
6주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그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9월 셋째주부터 10월2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며 “성수품 물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바가지 요금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안전 관리 체제를 가동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도 185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서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내수 경기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더욱 진작될 수 있도록 농식품 물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 농축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t)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명절 전 6주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용자 이자를 1%로 낮추고 용자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장기간 추심으로 인한 경제 활동 제한 등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에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을 개시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발급금 제도를 개선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율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돕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과 전시, 영화 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쿠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인 다음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고속열차 운임도 30~40% 할인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순이익 전망치 적용시 상단 3530... 기준금리·고율관세 변수

코스피 신고가 랠리

李 정부, 자본시장 친화정책 지속
삼성·SK 등 주요기업 실적 탄탄
“중장기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

코스피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증시의 상승세를 촉발한 직접적인 요인은 주식양도세 현행 유지와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1% 이상일 것이란 전망, 자본시장 친화정책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세계무대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써가는 한국 대표 기업들의 저력이 기록 경신의 밑바탕이 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 증시가 몇몇 위험 변수로 일시적인 조정을 겪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크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 대주주 50억 유지 등 겹호재

코스피는 올해들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코스피는 올해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가장 높은 42.00%의 상승률을 보였다. 독일(19.03%), 중국(15.18%), 미국(11.94%) 등 주요국 증시를 크게 앞질렀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신진지를 여는 데는 역시 외국인투자자의 힘이 컸다. 외국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에서 11조50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자금이 대안을 찾아 세계 금융시장을 떠돌고



한국 증시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을 넘어선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있다. 7월에는 미국 기술주, 8월에는 한생·넷케이 강세가 돋보였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투자대안으로 선택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 42곳이 내놓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9%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다.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통한 소비 확대로 내수가 다소 회복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전망보다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41개 기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제외한 41개 기관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예상과 같은 1.8%였다. 한은의 전망치(1.6%)보다 2%포인트 높

았다.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도 투자자를 증시로 불러 모은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발 훈풍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나빠졌으나, 시장은 이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유인이라고 받아들

였다.

또 미국 소프트웨어(SW) 기업 오라클이 인공지능(AI) 수요에 기반한 클라우드 매출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반도체주 주가의 상승을 자극했다. 이날 삼성전자(1.72%)와 SK하이닉스(0.23%)는 나란히 증시를 견인했다.

◆ 상승에 무게, 그래도 ‘국지적 파도’는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증시가 일시적 조정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다만 프랑스 등 유럽 재정위기와 미·중 갈등 등 해외 악재가 언제든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

되고,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국을 중심으로 비미국의 재정확대와 통화정책 완화 여력 또한 확대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2026년 상반기까지 상승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국내 기업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해서다. 증권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코스피 순이익 시장전망치는 204조원, 내년 전망치는 238조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이 관세 전쟁의 파고를 극복한다면 순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조금만 올라가도 증시의 재평가가 이뤄져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인 190조원에 이르는 2021년 코스피 최고점이 3316이었다”며 “이를 올해 순이익 전망치 203조원에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을 3530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선 2020년 말~2021년 초엔 12개월 선형 주가수익비율이 13을 넘었다.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10일부터 5조9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은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언제든 한국 증시를 떠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신해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증시를 떠받쳐야 할 개인투자자들이 여전히 증시를 외면한다면 외국인의 힘만으로는 상승장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고용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경영진 중대재해 책임 강화
김영훈 장관 “안전투자 이익구조 확립”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등록말소를 요청해 영업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제재를 도입한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금융·보험 등 각종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산업재해는 소액 벌금과 집행유예에 그쳐 기업이 위험을 방치해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였다”며 “앞으로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적자가 난 기업이나 영업이익 산정이 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가능한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하한액이 적용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차등 부과되며, 공정성을 위해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징수된 재원은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예방 활동에 재투입된다.

특히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시 사망사고로 제재 사유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말소가 되면 신규사업·수주·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를 건설

업 외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 시장을 통한 압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리스크가 기업 대출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여신심사 기준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과정에도 안전도 평가를 도입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는 선분양 제한 등 추가 규제도 검토된다.

상장사에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내려질 경우 즉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판단자료로 활용돼 ESG(환

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에 영향을 미친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며,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업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장이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배점도 대폭 상향되며, 민간기업 역시 적정 공사비·공사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안전비용을 하청에 전가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은 정례화되고,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만 계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의 감독 역량 강화도 병행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지자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법’을 제정해 전국 단위 통일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2조 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설비와 스마트 장비를 보급하고, AI 기반 안전

기술을 확산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고령노동자에게는 작업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도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해 안전규범을 만들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나 시정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사고조사와 수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송치된다.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은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인 힘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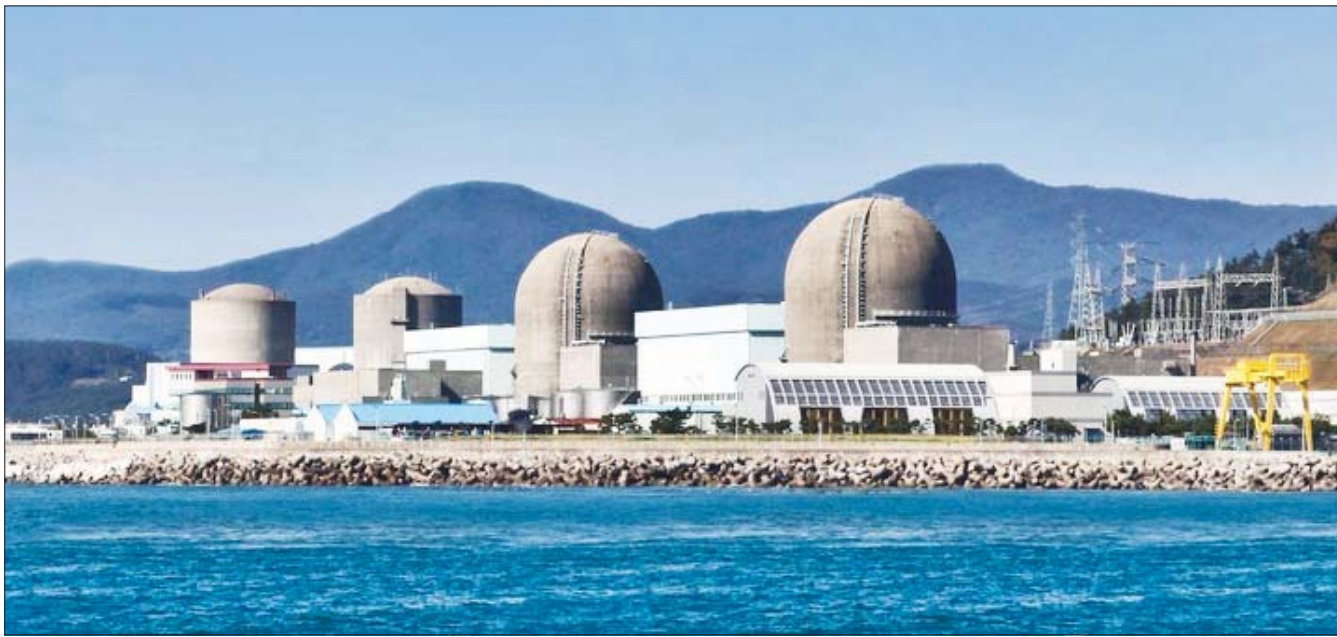
/세종=한용수 기자 hys@

AI전력 폭증 속, 원전 정책 오락가락… 산업 경쟁력 ‘위태’

전기본 재검토에 신규원전 불확실
정책 혼선 속 대형원전 ‘멈춤’ 우려
SMR 투자정책 흔들리면 전망 암울
“일관된 지원없인 기술·수출 흔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모호한 정책 기조가 이어져 원전 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을 단기 유행이 아닌 수십 년을 내다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 모듈원자로(SMR)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민 공문을 수렴해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기존 계획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00일 기자회견에서 ‘SMR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즉각적인 전력 공급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현실적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모호한 기조로 원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업계는 장기적 관점의 명확한 정책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이에 따라 제11차 전기본의 대대적 수정과 2026~2040년 계획을 담은 제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로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해 마련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식 논의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논의에서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그만큼 정책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전 산업은 하루 아침에 공급망을 복구하거나 설비를 확

충하기 어려워 정책 지연 자체가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업계가 가장 큰 우려로 꼽는 것은 대형 원전의 불투명성이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는 대형 원전이지만 정부가 추진과 재검토를 오가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힘든 실정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에서 이미 나타난 공급망 붕괴가 국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정책 변화와 안

전 규제 강화, 시장 환경 악화가 겹치며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돼 공급망이 크게 악화된 사례가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한 서머(V.C. Summer) 2·3호기가 주정부 요금 승인 중단과 공사비 폭증 등으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돼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프랑스 플라망빌(Flamanville) 3호기 역시 후쿠시마 이후 강화된 안전 규제와 설계 재검증으로 10년 넘게 지연됐다. 미국과 유럽은 이 같은 정책·규제 부담 속에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사실상 멈추면서 공급망이 무너졌고 현재는 웨스팅하우스처럼 설계 기술만 보유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내 신규 건설이 중단된 채 해외 수출만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3·4호기처럼 모델 플랜트가 있어야 해외 발주처가 동일 설계를 주문할 수 있는데 국내 건설이 멈추면 수출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SMR 투자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향후 전망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세대 원전 개발이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 완성되기 전 막대한 자금을 선제 투입해야 하는 특성상 정부 정책이 조금만 흔들려도 손실을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병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기술 개발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SMR은 이미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분야이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일관된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특검리스크·수출기회 교차… KAI 차기 사장 ‘생존형’ 필요

〈한국항공우주산업〉

3개월째 대행체제, 협상 신뢰 한계
KF-21·FA-50, 현안 산적한 과제
ADEX 공백 현실화, 망신 우려 고조
정부·노조 공통 요구, 생존형 리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창립 이후 최장기간 수장 공백 상황을 겪으면서 리더십 부재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글로벌 수출 기회가 높은 상황에서 KAI의 차기 사장 인선은 단순한 경영역량 보강이 아닌 KAI의 전략적 좌표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강구영 전 사장의 조기 사퇴로 KAI 수장의 자리가 3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차재병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대행 체제는 현안 대응과 국제 협상에서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KAI 본사 전경.

/KAI

현재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는 내부 출신 1명과 관료 출신 1명으로 압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류광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 등이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최근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KAI 사장 인선은 신임방사청장과 최대주인 수출입은행장 임명이 마무리된 뒤에야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AI 차기 사장 자리는 특검 수사라는 불확실성과 글로벌 수출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관리할 ‘생존형’ 리더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KF-21 전투기 양산, FA-50 수출, 수리온 헬기, 유지·보수(MRO) 사업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협력사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사와 치열한 수주싸움을 해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요구된다.

KAI는 올해 2분기 매출 828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852억원으로 14.7% 늘었다. 주주잔고도 26조6733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장부상으로는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

으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계약이 실질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

해외 고객사들은 계약 조건 협상 과정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대행 체제로는 신뢰를 주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음 달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도 수장 부재상황에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30여 개국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방산기업 CEO들이 참여하는 국제 무대에서, KAI가 직무대행 체제로 참가할 경우 최종 책임과 결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ADEX는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대규모 수출 계약과 장기 협력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자리이기에 리더십 부재는 곧 사업 기회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

노조는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최근 차기 사장 요건으로 ▲내부 출신 경력자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특검 수사와 무관한 인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KAI 창립 이래 최장의 수장 공백기로 ADEX를 코앞에 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인사로 조속히 공백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차기 사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생존형 리더’여야 한다”며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내 동력이 약화되고 해외 협상에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의 방산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KAI의 전략적 좌표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미국발 금융리스크, 달러 지배 강화… 국내 소비·투자 위축

한은, 금융리스크 충격경로 집중 분석
달러 강세 직격탄… 수출 경쟁력 약화
세계국채지수 편입·원화 국제화 해법

미국발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면 달러의 안전자산 기능이 떨어지면서 국내의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5일 ‘BOK경제연구: 달

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손민규 한은 경제모형실 과장이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금융리스크 충격이 ▲국제금융경로와 ▲무역결제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손 과장은 미국발 금융리스크가 발생하면 달러의 지배력이 떨어져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위험 회피성향이 강화되면 자금은 주로 미국의 국채에 몰리는데, 이 때 달러가 강세로 돌아선다. 이 경우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국내 금리가 오르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달러화 강세는 우리제품의 수입국 현지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에 부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수출은 대부분 달러화로 거래되는데 예컨대 1개의 바나나를 수출할 경우 환율이 1달러당 1600원이었던 원화가 1900원으로 올라도 달러화로 거래돼 가격 경쟁력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수출이 원화로 거래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수출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날 손 과장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통해 국채 투자 매력도가 제고

될 경우 국제금융경로와 무역결제경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과장은 “장기적으로 원화를 아시아 역내 국제화 등으로 추진해 달러화 변동이 무역결제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이로 인한 달러화의 글로벌 지위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하이닉스 AI의 미래를 높이 끌어올리다

AI기술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일
우리의 앞선 AI 메모리로부터 시작됩니다



與 “내란종식·정당해산심판”, 野 “친북 반미주의 정부 인사”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與 “내란 가담자 확실히 단죄해야”
정당해산심판 청구요건 묻기도

野 “李 정권 인사, 국익 걸림돌”
尹 체포영장 집행 CCTV 유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가담자를 단죄해 완벽한 내란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人事)’가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에게 동료 의원을 팔아 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며 “좌시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작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질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걸음이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고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추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애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

조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 의원은 “미국이 이런 사람들의 면

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딱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됐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 (폐쇄회로)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취지는 이런 행태는 국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부관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CCTV 녹화를 열람했는데, 이 모습을 촬영한 듯한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해당 영상이 유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청래 “모든 문제 책임은 당대표에 있어”

與野 3대특검 합의에 당내 투톱 갈등
정청래 “더 철저하게 지휘·감독할 것
원팀·원보이스로 추 정부 뒷받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3대 특검 연장법안 여야 합의 파기로 불거진 자신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상황에 대해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사태를 진화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만났다”며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내 투톱의 갈등 상황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바로 즉시 바로잡겠다. 중요한 당 내 사항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께서 여러가지로 마음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

신 것 같다”며 “우리 김 원내대표님, 위로드리고 더 힘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비공개 만찬 후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당·정·대는 정국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서로 웃으며 손을 잡았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했고, 김 원내대표는 “부부나 형제는 다 싸우면서 친해지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부부싸움 안 하나”라고 화답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해수부 이전, 권력 장악 도구로만 보는 것”

장동혁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李 정부, 지방선거 위해 조속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부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 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

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해수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부산 지역 정치권에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태홍 기자

법인세 신고기업 15% ‘깡통법인’… 청산 대책·지원 절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여파
경기둔화에 폐업 늘어나기도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0곳 중 15곳은 매출과 이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청산 대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극심한 내수부진의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아예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

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깡통기업은 2020년 11만3152곳이었는데,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사이 약 5만 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의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신고 법인은 83만8000개에서 105만8000개로 약 26% 증가했는데, 깡통기업은 11만3000개에서 16만1000개로 약 42% 증가했다. 이 동안 전

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로 늘어났다.

박성훈 의원은 급격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맞은 깡통기업에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440 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는 폐업 이후 제대로 청산조차 못하는 ‘무늬만 법인’을 위한 대책은 물론 폐업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성장 유도 정책과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취임 104일만에 내각 인선 완료

국무위원·장관급 인사 8명에 임명장
공식되었던 교육부·여가부도 채워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위원, 장관급 인사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날 최고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이들은 최고진·

원민경 장관, 그리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역원 금융위원장 등 8명이다.

특히 공식이었던 교육부·여가부도 수장이 채워지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대통령 취임 104일 만에 완료됐다. 두 부처는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보다 장관 임명이 늦어졌다. /서예진 기자 syj@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리디아고
Lydia KO

LPGA 통산 23승

이민지
Minjee LEE

LPGA 통산 11승

마다솜
Dasom MA

Defending Champion

이예원
Yewon LEE

노승희
Seunghui RO

황유민
Youmin HWANG

박연경
Hyunkyung PARK



공항철도를 타고
청라국제도시역(하나금융타운)으로
오시면 갤러리 티켓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5. 9. 18(목) ~ 9. 21(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관 |



방송 |



기획/운영 |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신탁사·시행사 정면충돌… 용인 ‘죽전테라스’ 소송전 비화

시공사 법정관리로 준공 지연에
교보신탁-보정PJT 갈등 이어져

신탁사 용역 50명 관리소 장악
“불법 임대차 계약, 법대로 대응”
시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 지난 8월 31일 경기 용인시 ‘죽전테라스
앤139’ 아파트 단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
이 됐다. 교보생명의 100% 자회사인 교보
자산신탁이 새벽 6시20분께 용역 인력 40
~50명을 투입해 관리사무소와 공용공간을
점거한 것. 주민들은 자물쇠가 부서지고 엘리
베이터가 멈춰서는 광경에 “집 안에 있지
만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며 당시의 공포를
떠올렸다.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용역인력은
단지 곳곳을 장악한 채 버텼다.

단독주택형 아파트인 죽전테라스앤
139시행사와 교보자산신탁(부동산신탁사)
사)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죽전테라
스앤139는 2021년 분양 당시 ‘프리미엄
테라스하우스’로 완판을 기록했다. 전
세대 테라스를 적용한 고급 단독주택형
아파트다. 하지만 시공사인 동광건설이



경기 용인시 ‘죽전테라스앤139’.

/전지원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준공 지연, 하자
방치가 지속됐고 부동산신탁사와 시
행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사인 보정PJT는 교보자산신탁
대표와 임직원 4명을 건조물침입·재물
손괴·업무방해·협박·업무상 배임·경비
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고소했다. 시
행사는 “법원 판결문이나 집행문 없이
무력으로 점유한 것은 명백한 자력구제
금지 위반”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보자산신탁은 즉각 반박
했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우린 불법
자력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불
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단지를 무단 점
유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했

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공사 부도 이후
사업 정상화를 위해 250억원을 직접 투
입했고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도 대응 중
이다”라고 강조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맞서 “시공사 부도
와 하자방치로 단지가 방치되자 체험입
주라는 임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뿐”
이라며 “교보자산신탁이 책임준공 의무
를 다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겼다”고 반
박했다.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고
소돼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
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개입하기 어렵다”고 설명



단지 내에는 해당 건물이 교보자산신탁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공고문이 곳곳에 붙여져 있다.

했다.
교보자산신탁의 모회사인 교보생명
은 “교보자산신탁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
는 사안이어서 그룹 차원의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교보생
명 관계자는 “시행사의 불법 임대·점유
행위가 있었던 만큼 신탁사가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선 분양·입주 문제를 둘러싼 신탁
사와 시행사의 이해관계 차이가 갈등
을 키웠다는 의견이다.
단지 인근 보정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교보자산신탁은 누적 적자
와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싸게라도
조기 매각해 매듭짓자는 입장인 반면,

(시행사인)보정PJT는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며 임대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자는 전략으로 보
인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신탁사
가 용역을 투입하며 극단적 충돌로 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신평평가에 따
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올해 2분기 246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 1분기 손실은
499억원으로 전년 동기(264억원) 대비
손실 폭이 확대됐다.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영업손실 3120억원,
순손실 2409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
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신용대출 막히자, 중고차 담보… 취약 차주, 고금리 급전

중저신용자, 6·27 규제 직격탄
할부 중고차까지 대출 담보로
최고금리 20% 육박, 차주 부담

신용대출 규제 강화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창구가 막히자 제2금융권 자동차
담보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특히
취약 차주들이 중고차까지 담보를 잡아
급전을 마련하면서 불형 대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5일 중저신용자 대출 상담 온라인커
뮤니티에 따르면 하반기를 중심으로 중
고차 담보 대출 한도를 묻거나 담보 대
출을 받아 급전을 마련했다는 후기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인데 중고차 담보 대
출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 글과 함께
“무직자인데도 가지고 있는 중고차로 창
업자금을 마련했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고차를 담보로 대
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등의 대출 후기 글이 주를 이뤘
다.
넷글에는 “자동차담보대출 한도가 크
게 나온다는 건 알았으나, 할부 중고차
도 대출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 “할부면
당연히 대출이 안 나올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이었다.
정부의 6·27대출규제 시행으로 신용
대출 한도가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
한된 데 따른 영향이다. 신용대출이 막
히자,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제
2금융권을 중심으로 자동차, 심지어 할
부가 끝나지 않은 중고차까지 담보로 잡
으면서 급전을 빌리고 있다.
특히, 중고차 담보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
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저

신용자를 유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고차 담보대출을 개인사업자로 신청
할 경우 DSR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일부
금융사는 차주의 신용도와 차량 가치를
합산해 차량 가치 이상으로 한도를 책정
하고, 이 가운데 소득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실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저축
은행의 개인 자동차 담보대출(차담대) 신
청 건수는 2만 7369건에 달했다. 올해 1
~5월 사이 21만 7960건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상반
기(1453건)보다 약 1.6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높은 금리다. 실제 온라인 커
뮤니티에 인증 글을 올린 일부 차주의

중고차 할부대출 금리는 연 15.2%에 달
했다. 주요 저축은행 역시 높은 수준의
금리를 나타냈다. 한 저축은행의 ‘오토
담보론 사업자 대출’ 금리는 연 14.1~
18.9%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저축
은행의 ‘오토론’ 대출 금리는 연 10.9%
에서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19.9%까지다. 중고차까지 담보로 잡아
야 하는 취약 차주들이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감당하며 급전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자금을 조달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취
약 차주들의 입장에서선 중고차라도 담보
를 잡을 수 있다면 잡을 수밖에 없다”면
서 “신용만으로는 점점 대출받기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연령별 리스크 보장 보험의 2차 출시

삼성화재는 상반기 보장 여카운트에
이어 하반기 새로운 혁신 상품으로 중
증치료비와 치매를 한 번에 보장하는
‘보험의 2차’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
다. 이번 신상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연령대별 건강 리스크
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70세까지다. 보험기간은 90
세 또는 10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허혈
성심장질환·특정순환계질환) 치료비와
치매 진단비를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
하는 하이브리드형 보장 구조를 새로
게 선보였다. 고객이 선택한 연령(75세
또는 80세)에 따라 보장 비중이 달라지
도록 설계해 보험료 부담은 기존 대비
약 15~30% 수준으로 낮췄다.

현대해상 국제선 항공편 지연편 4만~10만원 보험금

현대해상은 15일 다이렉트해외여행
보험 상품에 지수형 출국 항공기 지연
보장 특약을 새롭게 출시했다.
지수형 출국 항공기 지연보장 특약
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
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경
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소 4만원에
서 최대 10만원까지 정액으로 보험금
을 지급한다. 특약을 가입한 고객은 현
대해상이 보내는 알림톡을 통해 항공
편만 등록하면 지연 안내와 보험금 청
구까지 알림톡으로 간편하게 안내 받
을 수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

8월 전국 집값 소폭 오름세… 서울·수도권 주도

송파·용산·성동 등 1% 안팎 강세
대구·제주 약세… 지역별 온도차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06% 상승하며 소폭 오름세를 이
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내놓은 ‘8월 전
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은 0.
17% 상승했고 서울은 0.45%로 상승폭
이 두드러졌다. 반면 지방은 -0.05%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반에서 상승세
가 나타났다. 송파구(1.20%), 용산구

(1.06%), 성동구(0.96%) 등이 1% 안팎
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남·서초·마
포·영등포 등 주요 지역도 0.5% 내외로
올랐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1.08%), 과천시
(0.85%), 안양동안구(0.80%) 등이 상승
을 이끌었으나 평택(-0.65%), 고양 일
산서구(-0.35%)는 하락했다. 인천은 서
구(-0.14%), 연수구(-0.14%) 등 주요
지역이 약세였다. 지방에서는 세종
(0.15%), 울산(0.09%), 전북(0.07%) 등
이 상승했으나 대구(-0.19%), 제주(-0.
14%), 대전(-0.12%) 등은 하락세가 뚜

렷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4% 올랐다. 서울
은 0.21% 상승했고 송파구(0.72%), 강
동구(0.37%), 용산구(0.30%) 등이 강세
를 보였다. 반면 서초구는 -0.12%로 하
락했다.
경기에서는 하남(0.76%), 과천
(0.71%)이 크게 올랐고 고양 일산서구
(-0.39%), 평택(-0.35%)은 하락했다.
인천은 -0.11%로 약세였다. 지방은 울
산(0.20%)과 세종(0.31%) 등이 상승했
으나 대전(-0.13%), 제주(-0.15%) 등
은 내림세였다.

월세가격은 전국 0.10% 상승했다. 서
울은 0.24%로 오름폭이 가장 컸고 송파
(0.64%), 용산(0.47%), 영등포
(0.41%) 등이 강세였다. 경기는 0.10%
올랐으며 인천은 0.09% 상승했다. 지방
은 울산(0.29%), 전북(0.16%), 세종
(0.14%) 등이 상승한 반면, 대구(-0.
07%), 대전(-0.07%), 제주(-0.15%)는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주택시장은 서
울·수도권의 강세와 지방의 혼조세가 병
행된 흐름이었다”며 “서울은 매매·전세·
월세 모두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시장을 견인했으나 반대로 대
구·제주 등 일부 지역은 약세가 지속됐
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타이어업계, 유럽거점 확충 가속화 공장증설·법인설립 등 경쟁력 확보

유럽시장 판매 호조로 실적 반등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 3번째 증설
트럭·버스용 생산라인 2027년 확대
넥센타이어 루마니아 신규지점 설립
금호타이어 폴란드 공장 건설 착수

국내 타이어 업계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북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위축과 수익성 부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상승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유럽 공장과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각 사 매출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넥센타이어 42%, 한국타이어 41%, 금호타이어 29%로 높다.

한국타이어는 5억 4000만 유로(약 8600억원)를 투자해 헝가리 가칼마시 공장의 세 번째 증설을 진행하는 등 현지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27년까지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생산 라인도 증설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생산라인이 완공되면 연간 최대 80만 개의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경상용차 및 대형 상용차용 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헝가리 공장에 4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는 독일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넥센타이어는 전체 매출의 40%를 차



넥센타이어 체코 공장 전경.

지하는 핵심 시장인 유럽에 신규 지점과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최근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넥센타이어는 설명했다.

특히 동유럽 지역 대응을 위해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 신규 지점을 설립한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동유럽 전역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타이어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부쿠레슈티 신규 지점은 세르비아, 불가리아, 코소보 등 동유럽 9개국 유통을 전담하며 판매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넥센타이어는 체코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 공장이 없는 금호타이어는 현지 공략을 위해 신규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의 유럽 신규 공장 부지를 폴란드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폴란드어가 능통한 직원 채용을 진행중이다. 최근 구인·

구직 플랫폼에 직원 채용 공고를 게재했으며 주요 업무는 '신공장 건설, 인·허가, 운영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폴란드어 통·번역, 대관 업무'라고 명시됐다. 채용 후 서울 본사에서 일정기간 OJT(직장 내 훈련) 진행 후 폴란드 현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꾸준히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전체 매출에서 유럽 비중이 미국에 이어 2위지만 현재 물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물류비와 운송 기간 등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움직임이 보이면서 현지화 전략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타이어업계 매출을 보면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I로 반도체 한계 돌파 삼성, 생활혁신 잇는다

‘삼성 AI 포럼 2025’ 개최
반도체 버티컬 AI 전략 공유
산업·학계 최신 연구성과 발표
생성형 넘어 에이전틱 AI 모색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삼성전자는 15~16일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삼성 AI 포럼’은 매년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술 교류의 장이다.

삼성전자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무영역에 AI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 삼성 AI 포럼은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AI가 사회와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논의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이 주관하는 1일차 포럼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사전 초청자 200여 명이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버티컬 AI 전략과 비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 강연에 나선 캐나다 몬트리올대 벤지오 교수는 기존 AI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 통제 회피’, ‘악의적 사



삼성전자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삼성전자

용’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안전장치 역할을 할 새로운 모델 ‘과학자 AI’를 소개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 회사인 지멘스 ED A의 아밋 굽타 부사장은 ‘AI 기반 전자 설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반도체 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에 AI를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AI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워크플로우에서 작동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DS부문 AI센터장 송용호 부사장과 포항공대(POSTECH) 강석형 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일철 교수가 진행한 기술 세션에서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의 최신 AI 응용 연구 성과와 미래 전망이 논의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효성티앤씨, 국내 첫 ‘의류 재활용 섬유’ 생산

T2T 프로젝트 본격 가동

효성티앤씨가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Textile to Textile)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효성티앤씨는 15일 캐나다 T2T 페트칩 전문기업 루프 인더스트리(Loop Industries, Inc.)와 협력해 4분기부터 구미공장에서 ‘리젠 T2T’ 섬유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T2T는 버려진 의류를 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 원료인 페트칩을 만들고 이를 다시 섬유로 가공하는 순환 재생 시스템이다. 기존 리사이클 섬유가 페트병을 주로 사용했다면, T2T는 의류 자체를 다시 의류로 되살리는 기술이다.

패스트패션 확산으로 매년 전 세계에

서 약 9,200만 톤의 폐섬유가 발생하지만 재활용률은 12%, 의류로 재생되는 비율은 1% 미만에 그친다. T2T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효성티앤씨의 ‘리젠 T2T’는 글로벌 친환경 섬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며 순환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전망이다. 현재 리사이클 섬유 시장은 약 23조 원 규모이며 연평균 12.5% 성장해 2030년에는 약 75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티앤씨 김치형 대표이사는 “이번 T2T 프로젝트를 계기로 차세대 리사이클 섬유 시장에서 독보적인 프로바이더로 도약해 글로벌 브랜드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패션 생태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기아

고급감·편의성 강화

후석 모니터 등 추가

‘더 2026 카니발 하이리무진’ 출시

‘국민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연식변경을 거치며 편의사양을 대폭 개선했다.

기아는 국내 대표 프리미엄 리무진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6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 2026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편의사양을 강화해 고급감을 한층 높이고, 신규 트림 운영으로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후석의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와 7인치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4인승 전용)에 ccNC 테마의 최신 GUI(Graphic User Interface)를 적용하고, BOSE 프리미엄 사운드(12스피커, 외장앰프)를 선택 사양으로 신규 운영해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시각적·청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LG, ANC·EQ 탑재 신형 ‘엑스붐 버즈’

플러스·라이트 신제품 동시 출시
고객 취향 맞춘 3종 라인업 완성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무선이어폰 구매·선택 가이드’에서 가성비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엑스붐 버즈의 라인업을 대폭 강화한다.

LG전자는 무선이어폰 신제품 ‘엑스붐 버즈 플러스’와 ‘엑스붐 버즈 라이트’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는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과 가격을 세분화해 ▲10만원대 가격에 프리미엄 성능을 갖춰 최적 밸런스 가성비 이어폰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엑스붐 버즈 ▲가성비는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사운드·연결성·위생을 한층 강화한 엑스붐 버즈 플러스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엑스붐 고유의 사운드와 편리함을 즐길 수 있는 엑스붐 버즈 라이트까지 총 3종의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고객부터 핵심 기능만 부담없이 즐기려는 고객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무선 오디오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엑스붐 버즈 플러스는 사용자의 귀 모양과 착용 상태 등에 맞춰 자동으로 음질을 최적화하는 ‘적응형 EQ’를 탑재했다. 선명한 고해상도 사운드와 풍부한 저음을 구현해 마치 나만을 위한 개인 맞춤 사운드 엔지니어가 함께하는 듯한 오디오 경험을 선사한다.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 기능을 통해 외부 소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인다. 전용 앱인 ‘LG xboom Buds’ 앱에서는 ANC 착용 테스트도 진행해 볼 수 있어 최적의 ANC 성능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엑스붐 버즈 라이트는 출하가 9만 9000원의 엔트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엑스붐 고유의 사운드를 적용해 고품질 오디오 경험을 제공한다. 실제 환경에 적합한 마일드 ANC를 지원하며,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됐다. 4가지 프리셋 EQ(표준, 베이스 부스트, 보이스 인핸스, 몰입형)와 2가지 커스텀 EQ를 지원해 사운드 튜닝도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D현대삼호, AI·로봇기반 조선소 구축

LG CNS·현대로보틱스와 협력

HD현대삼호가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과 물류 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낸다. HD현대삼호는 15일 회사 판넬공장에서 LG CNS, HD현대로보틱스와 ‘안전한 공정 운영 및 효율화를 위한 휴머노이드 및 물류자동화 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

약식에는 김재를 HD현대삼호 대표와 현진균 LG CNS 대표, 김완수 HD현대로보틱스 대표를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용접 외 측정·성형·관제 등 다양한 생산 활동에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개발 ▲자율이동로봇 개발을 통한 조선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144곳 전통시장 할인·체험행사… “동행축제 함께 해요”

역대 최대 2만9000여개 점포 참여
추석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마련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혜택 풍성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전통시장 곳곳이 ‘동행축제’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은 어느 때보다 긴 최장 열흘까지 연휴가 이어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에서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졌다. 게다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킬 동행축제에도 동참할 수 있다.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9월에 열리는 동행축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9000여 소상공인 점포가 참여해 한 달간 축제를 펼친다. 또 전국 144곳의 전통시장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여기에는 가볼만한 문화관광형시장도 많다.

부산 망미중앙시장, 울산번개시장, 전남 무안전통시장, 서울 비단길현대시장이 대표적이다.

부산 수영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망미중앙시장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고 등하굣길 아이들의 친근한 골목길 역할도 한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비단길현대시장에서 고객들이 행사를 구경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히,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어린이 장보기 체험’은 방문객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9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에도 15회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어린이 김장 담그기 체험’, ‘나도 동화 속 주인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쳐진다.

망미중앙시장 관계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서 시장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에 있는 울산번개시장은 올해 문

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됐다. 울산번개시장은 이달 동행축제 기간 중 ‘수요시장 장날’을 총 10회 진행한다.

수요시장 장날에는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경품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5000원과 홍보기념품 등 푸짐한 상품을 선물한다. 동행축제와 연계한 ‘수요 야시장’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10회 운영한다.

전남 무안전통시장은 ‘캠핑 품은 황토골 토요일야시장’을 중심으로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9월에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총 4회 운영하며 ▲미식존 ▲체험존 ▲공연존으로 야시장을

구성해 먹거리, 체험 부스, 문화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동행축제 기간 중 시장 내 상인들은 자율적으로 ‘행복할인 행사’를 펼친다. 제품이나 음식값의 일부를 직접 할인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비단길현대시장은 ‘국경 없는 비단길 축제’와 ‘비단길 야시장’을 연계해 하루 종일 축제를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비단길 축제와 야시장 행사는 낮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나라의 느낌을 살린 민속의상 행진과 다채로운 공연의 ‘국경 없는 비단길 축제’도 진행한다. ‘비단길 야시장’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생맥주 교환권을 제공하는 맥주 축제를 열고 신선한 먹거리와 이벤트로 방문객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한편 9월 동행축제 기간 중에는 이들 시장 외에도 전통시장, 야시장, 지역축제 등에서 문화공연, 체험행사, 상품 기획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선사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한항공

홈페이지·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대한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통신 접근성(웹접근성)과 모바일 앱 접근성의 품질인증을 모두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는 2021년부터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해왔다.

대한항공 공식 모바일 앱 ‘대한항공 My’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앱의 접근성 인증까지 획득한 것은 대한항공이 모든 고객에게 평등하고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 선도 기업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SKB, ‘웨어 인터넷’ 출시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1회선으로 데스크톱, 노트북 등을 동시에 최대 10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 ‘웨어 인터넷’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보통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소형 병원, 학원, 사무실 등의 업종에서는 데스크톱과 노트북 등 PC 여러 대를 동시에 이용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니즈를 파악해 기존 최대 2대까지 동시 이용 가능한 단말 대수를 10대까지 확대 제공하는 웨어 인터넷 상품을 선보인다고 설명했다.

요금의 경우 웨어 기가라이트 기준 월 3만6300원이다. IPTV 결합 시 월 3만800원, 요금가족결합 시 월 2만5300원 등 결합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웨어 인터넷과 든든 웨어 인터넷 모두 기가 와이파이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와이파이가 증폭기인 윈즈도 월 1650원만 추가하면 이용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

KBI그룹, 美 BESS 사업 본격 추진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올 초 ‘에너지 아메리카’ 설립 루틸 BESS 홀딩스 지분 투자

KBI그룹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KBI그룹은 한국남부발전, 알파자산운용과 협력해 200MWh급 대용량 BESS 사업인 ‘루틸 BESS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 초 미국 델라웨어주에 ‘KBI 에너지 아메리카’를 설립했다.

KBI 에너지는 KBI국인산업과 KBI메탈의 자금 조달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루틸 BESS 홀딩스에 14.2% 지분투자를 진행한다.

KBI그룹은 올해 3월 남부발전 및 알



지난 4일 ‘미국 텍사스 Rutile BESS 프로젝트 EPC 계약 체결식’에 관련 임직원들과 방문한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KBI그룹

파자산운용과 주주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박한상 KBI그룹 부회장과 관련 임직

원들은 지난 4일 실질적인 사업 시작을 알리는 ‘미국 텍사스 Rutile BESS 프로젝트 EPC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루틸 BESS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전력시장에서 한국 기업 주도하에 최초로 추진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다. 1억2000만 달러의 공동 투자를 통해 미국 전력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미 텍사스주 러널스 카운티에 설치되는 BESS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다양하게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한다. 이후 전력의 공급 상황에 따라 저장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 거래 사업으로 구글·오라클 등

포스코인터, 몽골 재개발 지역 난방열 공급

하수열 활용한 난방열 사업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청에서 ‘하수열을 활용한 난방열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울란바토르 중앙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재개발 주거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두 회사는 2026년 상반기까지 공동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경제성과 기술력이 검증되면 하반기부터 15년간 BOT(건설·운영 후 이전) 방식으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15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청에서 열린 ‘하수열을 활용한 난방열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정경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왼쪽)과 다바달라이 울란바토르시 부시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완료되면 신규 건설 예정인 4000세대 규모 주택단지에 지역난방이 공급된다.

/원관희 기자 wkh@

신세계I&C, 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

AI 플랫폼 ‘스파로스 데브엑스’ 적용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는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개발 플랫폼 ‘스파로스 데브엑스’를 IT 서비스 전 과정에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파로스 데브엑스’에는 코딩 에이전트를 비롯한 AI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탑재돼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품질 점검 ▲운영 단계 등 전체 IT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스파로스 데브엑스는 단순한 코딩 자동화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IT 서비

스의 업무 단계별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문서 작성, 소스코드 생성, 테스트를 통한 오류 검증 등 모든 과정에서 활용 가능하다.

또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인 MCP(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없이도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시스템을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부 문서, 개인정보, 소스코드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코오롱베니트

CCTV 내 영상정보 비식별 솔루션 선택

코오롱베니트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 기업 인피닉과 협력해 CCTV 영상정보 비식별처리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코오롱베니트가 인피닉의 AI 비식별처리 솔루션 ‘하이드 AI’의 성능을 높일 하드웨어를 결합해 고객 활용도를 제고한 프리패키지 상품이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솔루션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화 의무에 대응해 주택·건물 건설사 및 시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영상 열람 요청에 따른 수동 편집의 복잡성과 비용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위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6,500원 → **월 1,500원**

일시불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여파

이통3사, 3분기 실적 전망 ‘먹구름’

SKT, ‘유심해킹’ 1348억 과징금
위약금 면제 등 더해 부담 가중

KT, ‘소액결제 해킹’ 금전피해 발생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불확실성 ↑

LG U+, 北 해커조직 서버침해 의혹

3분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인한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KT는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터지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실정이 됐다.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특별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상태지만, 최근 해외 해킹 잡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3분기 통신 3사의 실적에 개인정보 유출이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태’의 여파로 3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과 고객 보상 비용이 3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9.1% 급감한 579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순이익 적자 전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8월 한 달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 통신요금 50% 감면 조치와 위약금 면제 비용까지 더해져 부담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가입자 이탈과 보상 관련 지출, 정보보안 투자 등으로 하반기 영업실적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부과에 따라 3분기 순이익 적자도 가능한 상황이다. 8월 요금할인에 따른 매



3분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실적에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출 차감과 위약금 면제 비용으로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3분기 과징금을 반영해 올해 순이익 추정치를 5384억원으로 16% 하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3분기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KT의 경우,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해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비용이 3분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고강도 인력 효율화가 보안 등 기본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비판 속에서 김영섭 대표의 리더십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구조조정이 발빠르게 진행된 만큼, 통신망 관리·운영 등 기본역량 전반이 크게 휘청이게 됐다는 까닭에서다.

KT의 새로운 관계자는 이번 소액결제 해킹 사태를 경영진의 잘못이 빚어낸 ‘총체적 참사’라고 비난했다. 고객들은 불안에 떨고 임직원들은 부당한 비난을 받는 상황인데, 이는 허술한 보안 관리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경

영진의 초기 대응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해킹이 KT에 집중된 것은 타사보다 취약한 보안망 때문”이라며, “수익성만 추구한 경영진이 기존 유심 정보 탈취 위험에도 보안을 강화하지 않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로서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뚜렷한 피해 사실이나 과징금 부과 없이 의혹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에 의한 서버 침해 정황을 제기한 상태로, 아직 정부의 정밀 포렌식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실적과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다.

전문가들은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정부 조사가 본격화되면 두 회사 모두 3분기 실적 부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업계 전반에 걸친 보안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투자 부담 증가는 3사 모두에게 당연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네이버, ‘컬리N마트’ 오픈 기념 프로모션

100원딜, 반값 특가 등 혜택 제공

네이버는 15일부터 ‘컬리N마트 그랜드 오픈링 워크’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컬리N마트는 지난 4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문을 연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로, 네이버 인기 상품과 컬리의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새벽배송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받을 수 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안정적인 배송과 다양한 상품 셀렉션을 기반으로 빠르게 자리 잡은 컬리N마트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100원딜, 반값 특가, 포인트 적립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컬리N마트에서 한달살기’ 이벤트에서는 재구매 횟수에 따라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최대 8000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는 오후 12시, 2시, 4시 하루 세 차례 특가타임을 운영한다. 정오에는 ‘KF365 1+등급 무항생제 특란 20구’를 매일 1000개 한정 100원에 판매하며, 오후 2시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기 상품을 50% 할인한다. 오후 4시에는 화장지, 물티슈 등 생활필수품을 1+1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주 베테랑 칼국수’, ‘미크 클레버 대구 막창’, ‘이연복의 목란 찜뽕’ 등 인기 식품과 생필품을 최대 43% 할인하는 특가전도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

/최빛나 기자 vitna@

카카오엔터, 이달 신작 웹툰 4종 공개

로맨스판타지·무협·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로 독자층 확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9월 신작 웹툰 4종을 공개하며 다양한 장르로 독자 공략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통해 9월 화제의 신작 웹툰 4종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작은 로맨스판타지, 무협, 미스터리 스릴러, 육아툰 등 장르를 아우르며 독자층을 확장한다.

카카오페이지에서는 지난 1일 ‘악녀 언니를 구하러 온 용감한 강아지입니다’를 선보였다. ‘악녀의 문구점에 오지 마세요!’ 등 인기 로맨스판타지를 집필한 여로는 작가 원작의 노블코믹스로, 유담·연복 작가의 각색과 푸키 작가의 작화가 더해져 힐링물로 재탄생했다. 공개 직후 로맨스판타지 주간 랭킹 5위에 오르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오는 21일 론칭 예정인 ‘신마대제’는 누적 조회 수 6000만회를 돌파한 은검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노블코믹스다.



소년 부은설이 무림 최강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며, 역동적인 액션신과 묵직한 서사로 무협 팬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웹툰에서는 지난 14일 ‘미대괴담’을 공개했다.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돼 화제를 모은 ‘악연’ 최희선 작가의 신작으로, 미대 복학생 범행을 둘러싼 의문의 사건과 비밀을 서스펜스 있게 풀어낸 미스터리 스릴러다.

오는 28일 공개되는 ‘멍냥패밀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1만 명을 보유한 언더랜드 작가의 첫 웹툰이다. 귀여운 캐릭터 ‘멍군이’ ‘냥순이’ 부부와 ‘몽돌이’의 임신, 출산, 육아 이야기를 담아 MZ세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LG U+, 삼성 TV에 패스트채널 12개 공급

올해 순차적으로 ‘삼성 TV 플러스’서
구독료·시청료 없이 콘텐츠 시청

LG유플러스가 자체 송출 시스템으로 삼성전자 스마트 TV 플랫폼 ‘삼성 TV 플러스’에 FAST 채널(패스트 채널) 12개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9월부터 시청 가능한 채널은 ▲JTBC ▲JTBC2 ▲JTBC4 ▲MBN ▲한국경제TV ▲연합뉴스경제TV ▲매일경제TV ▲MTN 미니투데이방송 ▲캐리TV ▲더라이프2 ▲K비독 ▲아리랑TV 등 총 12개 채널이다. 올해 내 순차적으로 시청 가능하다.

FAST(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서비스)는 개방형 OS가 탑재된 스마트 TV에서 구독요금이나 시청료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IP TV, 케이블 TV 등 유료방송, OTT와는 달리 스마트 TV와 인터넷만 있다면 광



LG유플러스가 자체 송출 시스템으로 삼성전자 스마트 TV 플랫폼인 ‘삼성 TV 플러스’에 FAST 채널 12개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직원들이 FAST 채널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고를 시청하면서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 스마트 TV 플랫폼인 LG 채널과 삼성 TV 플러스에 FAST 채널을 직접 송출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와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삼성 TV플러스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3500개 채널과 6만6000여편의

VOD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자체 송출 시스템으로 FAST 채널을 직접 운영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객이 시청 중 발생할 수 있는 실시간 오류에 즉각 대응해 고객에게 최고의 시청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김서현 기자

NHN, 최애의 아이 퍼즐게임 타이틀 확정

내년 ‘최애의 아이 Puzzle Star’ 출시

NHN은 ‘프로젝트 STAR(스타)’로 알려졌던 인기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기반 퍼즐 게임의 정식 타이틀을 ‘최애의 아이 Puzzle Star(퍼즐 스타)’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게임은 해당 IP를 활용한 첫 공식 게임으로, 일본 내 퍼블리싱은 원작사 카도카와가 담당하며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의 퍼블리싱과 개발은 NHN이 맡는다. 게임은 TV 애니메이션 3기의 방영 일정에 맞춰 2026년 출시될 예정이다.

정식 타이틀은 지난 14일 일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 사쿠라타운에서 열린 ‘최애의 아이 서머 페스티벌’ 현장에

서 처음 공개됐다. 이 행사는 애니메이션 최신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러지는 대표적 팬 이벤트로, 이번 타이틀 발표가 현장의 큰 환호를 이끌어낸 핵심 이벤트로 꼽혔다.

‘최애의 아이’는 아카사카 아카와 요코야리 멘고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하며,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방영된 TV 애니메이션이 큰 흥행을 기록했다. 연예계의 빛과 그림자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은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으며, 2026년 TV 애니메이션 3기 방영이 확정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공식 티저 사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코리아 프리미엄 함께 만들자… 감독정책에 발 맞춰 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금융사, 소비자 권익 우선 고려
내부통제·사전 리스크관리 중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감독정책 협업을 강조하며 “코리아 프리미엄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기준에 근접했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과 규제 유연화, 정책 사전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과실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동반자”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감독정책 방향에도 발 맞춰 달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의 금융사의 영업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며 “금융상품 설계부터



(앞줄 왼쪽부터)신진옥 메릴린치증권 대표, 뤼프링 유안타증권 대표, 정혜연 아이엔지 대표, 카와세 노부히로 미즈호 대표, 피터 김 홍콩상하이은행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왕옥결 중국건설은행 대표, 하효건 중국공상은행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김용환 맥쿼리자산운용 대표, 박근배 스코리인슈어런스 대표, 한스 브랑켄 약사손보 대표, 하진수 제이피모간증권 대표. /금융감독원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관세정책, 지정학 리스크, 국내 저성장 등 대내외 변수에 대비하려면, 리스크관리는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효율적 내부통제와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글로벌 본사의 리스크 관리 경험을 국내 시장에도 적용해 선도적 모범사례를 함께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관리가 금융회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언급했다.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외국계 금융사의 적극적인 피드백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은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금융회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사 CEO들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전략적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외국계 증권사 대표는 “시장 접근성과 외환 자유도 등에서 이미 글로벌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한 상황”이라며 “일관된 제도 개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외국계 금융사의 회계 기준이나 글로벌 운영 구조를 고려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달라”며 “감독정책 방향도 사전에 공유돼야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도 MSCI 편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연내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정비 중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세분화, 퇴직연금기금 가입 확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반도체, AI, 문화산업 등 성장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투자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외국계 금융사도 한국 기업과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외국계 금융회사는 한국과 글로벌 자본시장을 잇는 가교이자, 금융 혁신의 여정을 함께하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금감원도 앞으로 고건과 경협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KRX, 뉴욕사무소 개소… “북미투자 가교” 이가탄·메이킨 넘어 CNS 압도적 성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美 출국
싱가포르·북경·런던 이어 4번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KRX 뉴욕사무소 개소식’과 미국 파생상품·탄소크레딧 거래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출국했다.

한국거래소는 정 이사장이 이날 개최되는 ‘KRX 뉴욕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전날 출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미국 증권협회(SIFMA) 케네스 벤슨 최고경영자(CEO), 헨리 페르난데스 MSCI Chairman&CEO, 피오나 바셋 FTSE Russell CEO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기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국거래소는 북미 투자자와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뉴욕(맨하탄)에 현지 사무소 설치를 결정했다. KRX 뉴욕사무소는 북미 지역에 위치한 기관투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9일 부산 시그니얼 호텔에서 개최된 ‘FIA Forum: Busan 2025’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자, 증권사, 지주사업자 등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한국자본시장 마케팅·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5월 런던사무소 개소에 이어 뉴욕사무소를 신규 설치했다. 글로벌 4대 권역(싱가포르, 북경, 런던, 뉴욕 등)에 한국 자본시장 마케팅 거점확보를 완성한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뉴욕사무소는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에서 한국 자본시장과 북미 투자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뉴욕사무소를 통해 북미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 이사장은 16일 KRX 탄소크레딧시장 개설 관련 업무협력 추진을 위해, 미국 소재 글로벌 탄소크레딧 거래소 운영사인 익스팬시브(Xpansiv)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17일부터 18일까지는 글로벌 파생상품시장 허브인 시카고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사장인 린 피즈패트릭과 크레이그 도노후 시카고옵션거래소(CBO) CEO를 각각 만나 양국 파생상품 시장 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IPO 간담회

명인제약

중추신경계 200여 종 치료제 확보
작년 매출 2694억, 영업이익 928억

“명인제약의 핵심 사업은 중추신경계(CNS) 분야이고, 업계 1위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상장을 통해 차세대 제형, 신약 개발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 세계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피 상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1985년 4월에 설립된 명인제약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대표 제품으로는 잇몸 질환 치료제 ‘이가탄’과 변비약 ‘메이킨’ 등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CNS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중추신경계 치료제 분야에 200여 종의 치료제를 확보했으며, 그중 31종은 단독의

약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이가탄, 메이킨 등 일반의약품(OTC) 부문은 15% 수준이지만, CNS 분야가 76.4%를 견인한다.

명인제약은 실적을 잘 내는 제약사로 꼽힌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694억원, 영업이익은 928억원을 기록하면서 3개년 연속으로 3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개발(R&D)부터 원료의약품(API)생산, 완제의약품 제조와 판매·유통까지 수직계열화된 ‘원스톱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명인제약은 “단 한 번의 마이너스 성장이 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의 실질적 목표가 지분 승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일각에서 이번 상장과 승계를 연결해서 보시는 시각이 있지만, 대주주 지분이 충분한 상황에서 승계만을 생각했다면 굳이 상장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상장은 오직 성장과 신뢰를 위한 상장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3~4년 이내에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AI 직접연동 투자 프로그램 ‘MCP’ 오픈

한국투자증권, 코딩없이 자연어 지시

한국투자증권이 인공지능(AI)과 직접 연동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MCP 서비스를 오픈했다.

15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픈 API 제공 서비스에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개발해 적용했다. MCP는 AI 에이전트들과 외부의 데이터 소스, 도구, 워크플로우 등에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통

신규약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자연어 지시만으로 한국투자증권 오픈 API를 활용한 투자 프로그램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가령 ‘A주식이 5% 오르면 10주 매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라는 간단한 프롬프트로 개인화된 트레이딩 톨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픈 API 활용 사용자 편의성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와 개발자가 알고리즘·퀀트 등 자신만의 전략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트레이딩 API를 공개하고, 개발자 센터 KIS 디벨로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트레이딩 API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실제 서비스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샘플 코드를 오픈소스 플랫폼 ‘GitHub’에 무료 공개했다.

또한 ChatGPT 기반 챗봇 서비스(GPTs)를 새롭게 도입해 API 사용법 안내, 오류 해결, 예제 제공 등을 24시간 지원한다.

한국투자증권은 AI 관련 보안 및 제도 요건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인도네시아 ‘무지개교실’ 완공

KB증권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 칠린싱 지역의 알 라흐마 사립학교에서 해외 ‘무지개교실’ 완공식을 개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지개숲’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KB증권 ‘무지개 교실’은 국내외 아동의 교육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미래 세대 육성이라는 KB증권의 ESG

경영 철학을 담아 2009년을 시작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무지개 교실’까지 총 국내 23개소, 해외 15개소를 포함한 총 38개소에서 진행됐다.

KB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에서 맹그로브 숲 조성을 위한 ‘무지개숲’ 협약식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복 무이라 지역에 20만 그루의 맹그로브 나무를 식재하기로 했다. /신하은 기자

농산물 유통 4단계→2단계 축소 온라인 거래·스마트 물류 대전환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 방안

‘합리적 소비앱’ 내년 보급 추진
온라인도매 활성화 요건 완화
산지유통센터 2030년 300곳 확충
전자송품장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농산물 유통구조가 현행 4단계에서 1 내지 2단계로 간소화된다. 온라인도매 시장은 판매자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또 알뜰소비 정보 등을 담게 될 대국민 모바일앱이 내년 중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등 유통 환경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에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현재의 유통 구조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이루고 유통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표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자로 직접 배송(기존 4단계→1~2단계)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지난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설치된 ‘온라인도매시장 현황판’

/농식품부

현재 전체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에 나선다. 현재 요건은 거래 규모 연간 20억 원 이상의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향후 이 요건 자체를 삭제할 방침이다.

또 물류비·판촉비용 등 판매자 및 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하기로 했다. 산지 스마트화를 통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의 일환이다. 또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스마트 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2024년 기준 30개소)로 늘리고 구축한다.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 기반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

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내 수급 불일치에 따른 단기 가격 변동성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 말까지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모바일앱의 기능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

업무 효율성·정확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과 사건 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15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공정위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본격화하고 업무 효율과 정확성을 높여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총 7명 규모로 꾸려진 전담팀은 기획조정관 산하 정보화담당관실에 설치되며, 기존 데이터팀 인력과 신규 임용 예정 직원이 포함된다. 전담팀은 ▲AI 혁신과제 발굴·기획 및 예산수립 ▲AI 법·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AI 서비스 운영과 유지관리 ▲AI 모델·데이터 보안 관리 등을 맡는다. 공정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먼저 지난해 하반기 구성된 ‘AI 활용 업무혁신 TF’가 선정한 7대 혁

신 과제 구현에 착수한다. 기존 업무망에서 운영 중인 ‘AI 번역기’에 공정위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하고,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 협업 과제로 개발 중인 ‘AI융합약관심사플랫폼’과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도 내년 말 개통이 목표다. 다만 대규모 연산자원과 개발 비용이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와 ‘AI 기반 사건 처리 고도화’ 과제는 체계적 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업무혁신 전담 조직 신설로 민원·사건처리 과정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키르기스스탄 채소종자 생산시설 완공

농어촌공사, 식량안보 협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채소종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채소종자 보급체계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성 및 식량안보를 높이기 위한 한국의 농업 부문 국제개발협력(ODA)으로 지난 2022년부터 추진돼 왔다.

국토의 90% 이상이 산악지형인 키르기스스탄은 지형 특성상 논 농업보다 밭작물, 채소 중심 재배가 발달했다. 하지만 수박, 마늘, 호박을 제외한 품목은 세계 평균 대비 생산성이 낮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품질 낮은 종자의 유통이 지목돼 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세우는 것이다.

공사는 키르기스스탄이 고품질 종자를 생산·연구할 수 있도록 종자 생산을 위한 물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비닐하우스

9동을 설치하고, 종자 선별, 가공, 저장에 위한 시설을 조성했고 입자선별기와 품압선정기 등 기자재를 지원했다.

아울러 성과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키르기스스탄 정부 및 농업대학과 함께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종자 자급을 바탕으로 식량 자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종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반응도 긍정적이다. 추이주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한 농업인은 “우수한 품질을 갖춘 종자가 보급되면 생산물 품질 또한 좋아질 것 같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양파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경 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이번 사업은 키르기스스탄이 자체적으로 종자를 생산·가공·보관·보급할 수 있도록 한 패키지 지원”이라며 “키르기스스탄이 종자 자급을 통해 농업 발전과 식량 주권 확립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남, 우즈베키스탄서 K-난방 교두보 마련

MOU 성과 확인·현장 점검
바이오·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가 9월 10~12일 우즈베키스탄에서 K-난방 사업 진출 활동을 전개하며, 중앙아시아 시장 확산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번 일정은 몽골·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을 잇는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마지막 방문지로, 한남은 현장 점검과 정책 협력, 기술 포럼 등 다각도의 사업 활동이 포함됐다.

정용기 한남 사장은 우선 지난 10일 뉴타슈켄트 신도시와 지자(Jizzakh) 지역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과 스마트시티 연계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인프라 구축, 연료 조달, 기자재 운송 루트 등 K-난방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1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열공공공사(Issiglikta‘minoti)와 ‘지역난방 현대화 및 열병합발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크 열공공사는 103개 노후 열원을 현대화하고, 지역난방 보급률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전담하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우측 두 번째)이 지난 12일 에너지 분야 투자협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는 총리실 직속 기관이다. 정 사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MOU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에너지, 환경,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양국간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열공공공사 일람 주라예프 사장은 “한남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한 K-난방 기술과 정책적 노하우는 우즈베크 에너지 산업 혁신에 꼭 필요한 해법”이라며 “주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

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기술포럼에는 현대와 위시스템, 장안기술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K-난방 기술을 소개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 날인 12일, 정 사장은 미르자 마흐무도프 주라베크 에너지부 장관, 쿠드라토프 라지즈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연쇄 면담을 갖고 △뉴타슈켄트 에너지 공급 투자사업 △자카트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자라프산 LNG 기반 복합 화력 CHP 프로젝트 등 3대 중점사업을 논의했다. 장관들은 한국형 에너지 솔루션이 우즈베크 2050 에너지 전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을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K-난방 사업의 레퍼런스 국가”라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은 이번 일정을 통해 북방 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며, 글로벌 K-난방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낙동강 녹조 조류독소 공동조사 착수

환경부·환경단체, 첫 공동 현장조사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낙동강 녹조 심화 지역에 대한 ‘조류독소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단체 조사 결과에서 공기 중 조류 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불안이 지속돼 왔다. 이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공동조사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이저 정부에서 조사를 위한 협의를 오랜 시간 진행했으나 끝내 조사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공동조사 협의를 재개해 이번엔 함께 나서게 됐다.

조사는 환경부와 환경단체 협의에 따

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동일한 조사 지점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낙동강 본류 구간 5개 지점이다.

구체적으로 ▲화원유원지(대구 달성군) ▲달성보선착장(대구 달성군) ▲본포수변공원(경남 창원시), ▲남지유채밭(경남 창원군) ▲대동선착장(경남 김해시)이다. 조사는 지점당 4회 실시하며 각 지점에서 원수와 공기 중 조류 독소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시료 채취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가 이달 안으로 완료하고, 시료에 대한 분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류독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제2회

 G밸리 Gvalley Art Show **아트쇼**

그림 속에서
나를
발견
하다

STEP1. 푸른 청춘의 외침展

2025. 9. 1월 - 9. 13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2. AI아트展 & AI영상 광고展

2025. 9. 15월 - 9. 27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3. 디지털에 마음을 담다展

2025. 10. 22수 - 11. 8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가산 **SK V1 center** 20F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아쿠아픽 본사 내)

*전시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청년작가 및 AI작가 전시지원에 사용됩니다 *전시 및 작품 문의 02-6743-3303

주최 **G밸리아트쇼 조직위원회**

 **KIBA**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Korea Industrial Business Association

주관 **SOHWASO**

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aquapick** 가산 **SK V1 center**
아쿠아픽

대구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초연결도시 대구’ 미래상 제시… 10+2 중심지 체제 개편

모빌리티 등 신산업 공간 마련
군위군에 2개 중심지 신설
행정절차 거쳐 내년 초 확정

대구시는 2040년의 미래변화를 대응해 도시공간구조와 발전 전략을 담은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최근 군위군 편입에 따라 전국 최대의 광역시로 지리 잡았으며 T K신공항 건설, K2 및 군부대를 포함한 후적지 사업과 미래산업 추진 등 도시 공간의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비롯한 선도적인 미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 204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핵심사업의 연속성과 근거를 마련하고 ‘5극 3특’과 같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지역균형성장 국가정책에 대해 리더도시로서 대응하기 위해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대구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최고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2040년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의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참여단을 운영해 ‘청년이 그린 미래 대구의 모습’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가치는 ‘글로벌 허브, 미래산업 혁신,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미래상, 공간구조, 인구·개발가용지 등의 구상과 함께 9대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2040년 대구의 미래상은 ‘세계·미래·세대를 잇는 초연결도시 대구’로 제시하고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3대 목표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 미래를 연결하는 활력도시, 세대를 연결하는 매력도시로 설정했다.

공간구조는 기존 10개(도심, 동대구, 서대구, 안심, 성서, 칠곡, 뉴k2, 수성, 월배, 현풍) 중심지 체계에서 군위

군에 2개의 중심지를 신설한 ‘10+2 중심지 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방문객 등 생활인구를 품은 320만의 메가시티로 설정해 대경권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개발 가용지는 120㎢로 설정해 대구 핵심사업 추진 등 미래 대구의 공간 혁신에 대비했다.

아울러 미래상의 목표에 맞게 글로벌·광역·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는 ‘관문도시’, 신산업 엔진·도심 Big-Change·New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활력도시’, 스마트생활권·K-culture 중심도시·대구 Cool-Line을 구축하는 공간 전략을 수립했다.

대구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미래 신산업 성장의 공간적 기틀 마련, 기업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및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 ‘안전대진단’ 실시

광주시가 다음달 30일까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025년 광주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

공공시설물 142개소와 전동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126개소, 스포링클러 미설치 노후 공동주택 92개소 등 총 360개소가 대상이다.

또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방범비상벨 3226개소의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이용이 많은 전동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화재·시설 안전 상태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부산시

시내버스 영업소 관리 강화

부산시는 내달부터 시내버스 영업소 전역에서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과 대리 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홍채·안면 인식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최근 부산지역 시내버스 전체 53개 영업소(업체 33곳)에 설치가 완료됐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를 미측정, 정상, 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표출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북극항로추진팀’ 신설

환경해지역본부장 직속 조직
정부 북극항로 정책 적극 대응

경북도가 정부의 북극항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북극항로추진팀’을 신설했다.

‘북극항로추진팀’은 경북도 동부청사의 환경해지역본부장 직속조직으로 편성돼 경북도 차원의 북극항로 개발 정책 발굴과 영일만항의 북방물류 거점항만 육성 지원, 극지·항만과 관련된 필수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수립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구축해 전략 과제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새 정부의 경북 7대 광역공약에 영일만항 확충 지원을 포함시킨 데 이어 내년 국가투자예산으로 영일만항 남방파제 2단계 축조사업에 1112억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285억원, 영



일만항 소형선 부두 축조에 132억원 등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북극항로 특별법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영일만항의 권역별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북극항로 거점항구로 영일만항 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해지역본부장은 “북극항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물류산업의 중요한 전략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며 “영일만항이 지역의 철강, 에너지 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주도록 북극항로추진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수운잡방·음식디미방’ 유네스코 후보 선정

안동시 내년 6월 최종 등재 결정

경북 안동시는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우리나라 전통 조리 지식을 담은 기록물이다. ‘수운잡방’은 민간에서 쓰인 최초 조리서로,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음식디미방’은 양반가 여성이 남긴 가장 온전한 형태 한글 조리서로, 여성의 지식 전승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이번 국내 후보 선정으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 신청서가 제출됐다.

2026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MOWCAP)에서 최



전통 음식 조리서 ‘수운잡방’

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 시 관련 분야 연구 및 문화 교류 확대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등재 추진은 안동이 보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국내외 협력을 통해 안동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대구교육청, 5세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 실현

대구시교육청은 이달부터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무상 지원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연계해 2027년까지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의 첫걸음이다.

대구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월 11만 원, 어린이집 월 7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기관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당 누리과정 제공에 필요한 표준유아 교육비와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

후 과정보비 5만 원이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상향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 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특별활동비와 현장 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평균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5세 무상교육·보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며, 7~8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반환하거나 이월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전남대병원, ‘월드 베스트 전문병원’ 선정

화순전남대병원 암 분야 세계 140위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월드 베스트 전문병원’에 종양학·내분비대사내과·소아청소년과가 선정됐다.

뉴스위크는 30여개 국 의료전문가 4만여 명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의료기관 인증 데이터, 환자 자기 평가도구(PROMs) 실행 여부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의 암(종양학·oncology) 치료 분야는 세계 140위에 올랐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단 2곳만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 세계 3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병원은 14곳 뿐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 중 8위로 비수도권 병원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는 117위, 소아청소년과는 215위에 오르는 등 등 5년 연속 세계 최고 전문 병원에 선정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양산시

개인택시 12대 신규면허 발급

경남 양산시는 택시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개인택시 12대의 신규면허를 발급한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증차로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고시한 증차 총 36대 가운데 양산시 몫은 12대다. 공급 대수는 시의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비율제로 배분되며, 운전경력과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10월10일까지 공고를 거쳐 10월13일부터 22일까지 분야별 1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양산(경남)=이도식 기자

케데헌 효과에 美 관세 비껴가… 농심 ‘글로벌 반등’ 신호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케데헌 한정판 1000세트’ 1분 완판
현지 생산 미국물량 실적 미반영
3·4분기 美 매출 7%·12% 오를 듯
중장기적 미국시장 1위 달성 목표

농심이 ‘케데헌 효과’와 미국 현지 공장을 앞세워 글로벌 무대에서 질주하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협업으로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린데다 관세 리스크를 비껴간 북미 시장에서 판가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농심은 국내에서 40년간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절대 강자지만, 북미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를 앞세운 삼양식품에 비해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면에서 뒤쳐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케데헌 한정판 신라면’을 선보이면서 반등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그 결과 29일 출시한 ‘케데헌 한정판 1000세트’는 1분 만에 완판됐다. 글로벌 팬덤을 겨냥한 이번 협업의 초도 물량은 약 500억 원 규모로, 신라면 오리지널과 톰바, 새우깡, 톰바 소스 등이 미국·유럽 시장에 순차 공급된다. 특히 미국 물량은 현지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 통계에 잡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릭터를 입힌 농심 제품.

/농심

히지 않지만 9월 중순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매출 개선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심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수혜를 크게 누리는 배경은 미국 내 생산 거점 덕분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생산·수출 비중이 큰 삼양식품은 직접 타격을 받게 됐다.

반면 농심은 캘리포니아에 두 개 공장을 두고 있어 현지 판매 물량 상당 부분을 관세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다. 연간 최대 10억 개 생산 능력을 갖춘 이들 공장은 농심이 미국 시장을 전략적 핵심지로 키워온 결과물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농심의 하반기 실적 반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현지에서 단행한 약 10% 초반대의 판가 인상이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되면서 수익성과 매출 성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농심 북미 법인의 매출은 3분기 1635억 원, 4분기 1782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전체 매출 1조7608억 원 가운데 북미 법인이 차지한 비중은 17.3%(3058억 원)에 달했으며, 연말까지 이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농심은 증권사 목표주가(하나증권 54만 원, 한국투자증권 49만 원)를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농심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인스턴트 라면 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시장점유율 21.5%로 일본 도요스 이산(42.8%)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삼양식품(8.1%)과는 격차를 벌렸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월마트 내 메인 매대 입점을 기존 대비 5배 확대했고, 코스트코 서부 일부 지역에 신라면 톰바를 입점시키며 유통망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력 강화도 병행한다. 지난해 미국 제2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부산 녹산에 수출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내년 하반기 완공되면 연간 5억 개 라면을 추가 생산할 수 있어 농심의 수출용 라면 생산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농심은 2030년까지 매출 7조 3000억원, 해외 매출 비중 6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관계자는 “글로벌 팬덤을 활용한 브랜드 협업, 현지 공장을 통한 관세 회피, 유통망 확장과 판가 인상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농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며 “농심의 글로벌 행보는 당분간 거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새로 콘텐츠 얼굴 맛집은 새로구미./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

제로슈거 소주 ‘새로’ 3년만에 7억병 판매

2022년 9월에 첫 선을 보인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슈거 소주 ‘새로’가 출시 3주년을 앞둔 지난 7월말에 누적 판매량 7억병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제로 슈거 소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는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목넘김과 알코올 특유의 향이 덜해 마시기 편하다’ 등의 평가를 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출시 4개월여 만에 누적 판매량 5000만병을 돌파했다. 이후 출시 7개월여만에 누적 판매 1억병 돌파, 출시 3주년을 앞둔 올 7월말 기준 출시 34개월 만에 7억병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또한, 연예인 모델 대신 ‘새로’의 엠베서더 ‘새로구미’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광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보인 스토리텔링이 기반이 된 색다른 소통 역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다.

‘새로’는 출시 이후 지난 달까지 총 43편의 동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해 총 8600만여뷰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제로 슈거 새로, 새로 맛집은 새로, 얼굴 맛집은 새로구미’편의 경우 약 1100만뷰를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쿠팡

와우카드 200만장 돌파 캐시백 등 20만원 혜택

쿠팡이 KB국민카드와 함께 선보인 ‘쿠팡 와우카드’ 발급이 200만 장을 돌파했다. 쿠팡은 이를 기념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캐시백, 할인쿠폰 등 최대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프로모션은 신규 발급 고객이 3만원을 결제하면 2만1000원의 보너스 캐시백을 지급하고, 쿠팡이츠에서 1만6000원 이상 첫 주문 시 사용 가능한 1만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비자(Visa) 브랜드로 발급 후 해외에서 30만원 이상 결제하면 6만원의 캐시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혜택도 유지된다. 쿠팡의 모든 서비스에서 결제 시 최대 4%, 그 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최대 1.2%를 쿠팡캐시로 적립해준다. 월 최대 5만2000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손종욱 기자

롯데웰푸드 ‘고창 고구마 시리즈’ 2주만에 완판 신화

지역농가와 상생 위한 기획제품
카스타드 꿀고구마 라떼 등 10종

롯데웰푸드는 지난달 28일 선보인 ‘고창 고구마 시리즈’의 건·빙과 제품이 출시 2주 만에 납품 기준 전량 소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부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채널에서는 품절 사태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 고구마 시리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제품으로, 롯데웰푸드가 지역농가와 의 상생을 위해 기획한 ‘맛있는 대한민국 상생로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사례다. 지난해 첫 번째로 선보인 ‘부여 밤 시리즈’가 한 달여 만에 완판된 데 이어, 올해는 생산 물량을 지난해 대비 70%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롯데웰푸드 ‘고창 고구마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 소비자 모습.

/롯데웰푸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배 빠른 속도인 2주 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한층 뜨거운 소비자 반응을 끌어냈다.

완판을 기록한 제품은 카스타드 꿀고구마 라떼, 명가 찹떡파이 꿀고구마, 마가렛 꿀고구마 라떼, 빈츠 꿀

고구마, 크런키 더블크런치바 미니 꿀고구마, ABC 초코쿠키 꿀고구마, 말랑카우 꿀고구마 우유, ZERO 연양갱 꿀고구마, 빵빠레 꿀고구마, 찹떡아이스 꿀고구마 등 10종이다. 11월까지 가을 시즌 한정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류 2종을 제외한 전체 라인업에 해당한다.

고창 고구마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라 일명 ‘꿀고구마’라고 불릴 정도로 달콤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다. 롯데웰푸드는 제품 생산 노하우를 활용해 고창 고구마와의 맛과 향의 시너지를 이뤄냈다. 특히, 각 제품 패키지는 고창 고인돌, 갯벌, 판소리 등 고창군의 유네스코 등재 유산 이미지를 삽입해 제품 구매가 곧 지역 농가 활성

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롯데웰푸드는 지역 상생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프로모션도 진행했다. 수도권 소비자에게 고창군과 제품을 알리기 위해 용산역, 합정역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고창군에서는 고창읍성 등 지역 문화유산과 유명 카페에서 방문객 대상 제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충남 부여군 특산물 알밤을 활용해 선보인 ‘부여 알밤 시리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 홍보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지역투자 활력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스팸부터 명인 제품까지 추석선물 선배

CJ제일제당, 선물세트 186종 준비

CJ제일제당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 186종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특별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색 콜라보’ 제품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다채롭게 마련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추석에 국민 명절 선물 ‘스팸 선물세트’를 특별하게 선물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들을 준비했다. 네이버 ‘해피빈’,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벨리콤’ 등과 협업한 스팸 선물세트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해피빈 스팸 선물세트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돌봄결손 아동에게 전달돼 명절의 따뜻한 마음까지 전할 수 있다. 또한 골드바 패키지에 황금색 스팸이 담겨있는 ‘스팸 골드바 에디션’과 CJ더마켓에서만 판매하는 ‘스팸 슈퍼문 에디션’ 등 한정판 선물세트들은 희소성과 독점함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프리미엄 더블버거 2종 출시

신세계푸드와 협력 ‘3980원’

이마트24가 신세계푸드와 협력해 ‘프리미엄 더블버거’ 2종을 이달 17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편의점 프리미엄 버거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양사가 상품 개발 전 과정에 참여했다.

신제품은 ‘더블비프치즈버거’와 ‘블랙페퍼더블버거’ 2종으로, 가격은 모두 3980원이다. 두 상품 모두 국내산 원육 함량이 69% 이상인 패티 2장과 특제 소스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내용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투명 용기를 적용했다.

이마트24가 프리미엄 버거 라인업 강화에 나선 것은 관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트2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마트24의 3500원 이상 프리미엄 버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

이마트24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신세계푸드와 협력해 샌드위치, 디저트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지는 신제품 구매 시 탄산음료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경쟁 치열... 상업화·후속연구 속도

제일약품 ‘자큐보정’ 추가 임상
HK이노엔 ‘케이캡’ 美 시장 도전
대웅제약 ‘펙수클루’ 수출국 확장

올해 들어 국산 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이 ‘3강 체제’를 형성하며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큐보정’이 후발 주자로 합류해 빠른 성장세로 입지를 다지고, 기존 선두주자인 ‘케이캡’, ‘펙수클루’와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와 함께 차세대 신약 후보물질 개발도 이뤄지고 있어 시장 전체의 기술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후속 연구개발을 확장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약물의 가능성을 높인다.

자큐보정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서 발매되고 있다. 출시 후 첫 번째 분기 45억원, 두 번째 분기 70억원, 세 번째 분기 94억원 등으로 매분기 매출 실적을 경신했다.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정’ /제일약품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이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큐보정’의 약물 상호작용 평가를 위한 추가 임상 1상 시험계획(IND) 변경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한 달여 만이다.

이번 임상은 자큐보정과 국내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들을 동시에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 건강한 성인 총 96명에서 JP-1366 투여 시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아토르바스타틴, 아픽사반을 각각 병용 투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해당 두 약물 간의 약동학적 및 약력학적 변화, 안

전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예상 임상종료일은 오는 2028년 9월이며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 따라 상업화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중국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같은 계열의 경쟁 약물인 HK이노엔의 ‘케이캡’과 대웅제약의 ‘펙수클루’도 앞다퉈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특히 해외 대형 시장을 정조준한다.

HK이노엔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한다. 올해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케이캡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미란성 식도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등을 적응증으로 한 미국 임상 3상뿐 아니라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 요법을 평가한 임상 3상에서 주

요 결과를 연달아 공개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인도, 중국 등으로 펙수클루 수출국을 확장했다. 국산 P-CAB 제제가 인도로 진출한 것은 펙수클루가 처음이다. 인도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항궤양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인도 항궤양제 시장은 약 1조 4000억원, 중국 항궤양제 시장은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026년 하반기 중국 발매를 기점으로 대웅제약은 펙수클루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P-CAB’ 계열 약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존 양성자펌프억제제(PPI) 약물에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해당 시장에 보다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외 진출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시장 선점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유한양행 ‘메모 큐’ 국내 판매

유한양행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이노’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원내 모니터링 솔루션 ‘메모 큐(MEMOCue)’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휴이노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제품 ‘메모 큐’를 개발하고 유한양행은 판매한다.

메모 큐는 웨어러블 심전도 패치를 포함해 심전도, 호흡 등 다양한 환자 생체 데이터를 8일간 연속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갖췄다.

양사는 웨어러블 기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기기로 협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명절 프로모션

아모레퍼시픽은 고급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9월 한 달 동안 아모레몰을 비롯한 주요 이커머스 채널과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 ‘추석엔 설레는 설화수와 함께’ 행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설화수는 명절을 맞아 소중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함보’ 포장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해를 담은 함과 보자기라는 뜻의 ‘지함보’는 주는 이의 마음과 받는 이의 기쁨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설화수 관계자는 “고객들이 설화수를 통해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 시즌에 맞춘 다양한 고객 경험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hy ‘브이푸드 위클리’ 3종

hy가 ‘브이푸드 위클리 3종(▲브이푸드 위클리 올인원 ▲브이푸드 위클리 스킨핏 ▲브이푸드 위클리 컷앳·사진)’을 출시한다.

일간, 월간 소비 패턴이 주를 이루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주 단위 정기배송 시대를 열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신제품 3종은 한 팩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21종의 비타민·미네랄 1일 권장량을 100% 충족한다.

또한 각각의 가능성을 차별화해 관심사에 따라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 진출

다정한마켓과 공동사업 업무협약
“반려동물 위한 건강·복지 제품 개발”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로렌츠’를 운영하는 다정한마켓과 지난 10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정한마켓은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반려동물 간식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접근으로 반려동물 산업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에 대한 잠재적 독성과 효능을 동물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입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왼쪽)와 주식회사 다정한마켓의 박민수 대표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로렌츠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의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제품 독성평가로 피부에 유해한 영향 사전 검증 ▲반려동물의 장 오가노이드 기반 장 부착능·장벽회

복 효능 평가로 장누수증후군 질환 모델에서의 장벽회복 효능 검증 ▲반려동물의 장 오가노이드 기반 증식능·장벽회복 효능평가로 동물사료 제품 9종에 대한 증식능 및 장벽 회복 효능 검증 연구들을 수행할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결과적으로 사람 질환 연구에 주로 활용되던 오가노이드 기술을 반려동물용 제품 평가 분야까지 확장하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시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사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반려동물제품의 효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비영리단체 ‘애니멀프리니셔티브(AFI)’의 인증 획득을 공동 목표로 하고 있다. AFI는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동물-프리(animal-free)’ 기술

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증하는 단체로, AFI의 인증은 화장품·화학물질·생활제품 등의 효능과 독성을 동물 실험 없이 첨단 바이오테크놀로지 평가하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부여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하게 됐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유종만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가노이드가 사람을 넘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품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산업군과 협력해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 영역을 넓히고, 국제 인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미약품, 멕시코에 당뇨 복합제 공급

실라네스와 라이선스·공급 계약
“멕시코 시장 기반 해외사업 확장”

한미약품이 멕시코 제약사 실라네스와 당뇨 복합제에 대한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우수한 제형 기술과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실라네스는 멕시코 내 허가,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다.

양사는 2019년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오고 있다. 실라네스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한미약품의 복합제 기술에 큰 관심을 보여왔으며, 2023

년부터 ▲아모잘탄큐(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모잘탄플러스(고혈압 치료제), ▲구구탐스(전립선비대증·발기부전 복합제) 등을 연이어 출시하며 협력 제품군을 지속 확대해왔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에 앞서, 실라네스 본사 및 생산시설을 찾아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 복합제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멕시코 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해외 사업 확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휴젤, 장두현 단독대표 체제 전환

장 대표 “지속 가능한 혁신기업 도약”

글로벌 토털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휴젤은 이사회를 열고 장두현 대표집행임원(CEO·사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휴젤은 제약·바이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업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자 대표 체제에서 단독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장두현 신임 휴젤 대표는 국내 제약회사 보령의 ‘최연소 CEO’ 출신이다. 1976년생으로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AT&T, CJ그룹 등을 거쳐 2014년 보령홀딩스 전략기획



실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보령제약운영총괄 부사장 역임 후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보령 대표이사로 근무했다.

장두현 휴젤 대표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K-메디컬 에스테틱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한 휴젤에 합류해 새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휴젤이 지속 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청하 기자



2025 물류 & 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시 | 9월 24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행 사 명 2025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주 제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일 시 2025년 9월 24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문 의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김학도 한국협업진흥협회장 조풍연 한국 SW-ICT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허원호 기아 국내 PBV 전략팀장 : 물류 산업에 PV5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강 연	14:50~15:20	김기혁 에스더블유엠 대표 : 로보택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15:20~15:50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 : AI 드론의 무한한 확장, 미래 물류 혁신의 출발점
	15:50~16:20	강종수 한국자동차연구원 센터장 : 물류 모빌리티 전기다목적자동차 산업육성
	16:20~16:50	강인호 피코이노베이션 이사 : 중소제약사들이 뭉쳐 만든 피코이노베이션의 물류혁신 스토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과 ‘가족 초청행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2025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3일과 14일, 오는 20일까지 총 3일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다.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돼 총 65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5000여 명보다 30% 확대된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푸르메재단, 장애아동 가족여행 진행**

효성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푸르메재단과 함께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효성 임직원 9가족과 효성이 지원하는 장애아동 9가족이 1:1로 매칭되어 강원도 일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박 3일간 남한강 해변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미디어아트 전시와 착시 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효성

**롯데렌탈, 고용부 주관 ‘韓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롯데렌탈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청년·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렌탈 최치환 대표이사(오른쪽)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인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렌탈

**신한라이프, 어르신 350명에 식품키트 전달**

신한라이프는 지난 12일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가족없이 혼자 생활하시는 홀로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임직원 약 40여명은 추석을 맞아 전국에 계신 어르신 350명에게 따뜻한 온기를 담은 식품키트를 전달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

**태광그룹, 세화미술관 재개관 기념 ‘공공미술 포럼’**

태광그룹은 세화미술관이 미술관 확장 재개관을 기념해 ‘2025 공공미술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의 공공미술, 도시와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서 예술가, 학계, 행정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해 도시 속 공공미술의 사회적 의미와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다.

/태광그룹

현대차 ‘더 뉴 엘란트라 N TCR’, TCR 5라운드 우승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
총 458포인트… 종합순위 2위

현대차는 ‘더 뉴 엘란트라 N TCR’이 12~14일(현지시간) 호주 테일럼 벤드에서 열린 ‘2025 TCR 월드투어’ 5라운드 우승을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TCR 월드투어는 제조사가 아닌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이싱 대회로, 한국을 포함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 총8라운드가 진행된다.

더 뉴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노버트 미첼리츠 선수가 9월 12일~14일(현지시간) 열린 ‘2025 TCR 월드투어’ 5라운드 호주 대회 첫번째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포디움에서 기뻐하는 모습.

/현대차

출전한 ‘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 팀의 노버트 미첼리츠 선수는 지

난 13일 치러진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같은 팀

서울세계불꽃축제, 관광산업 긍정적 효과

오는 27일 여의도 일대서 열려
인근지역으로도 관람객 분산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서울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이어온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조사한 문화관광진흥연구원 서철현 이사장은 15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 따르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 문화관광축제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평시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295억 원 규모의 직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 이사장은 “여의도 한강공원뿐 아니라 마포구, 용산구, 동작구 등 인



서울세계불꽃축제 사진.

/한화

근 지역으로 관람객이 분산되면서 숙박·교통·식음료 업종 매출이 크게 늘고 카페·편의점·배달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수요까지 증가한다”며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임시 인력 고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꽃이 주는 감각적 경험은 관광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제공해 반드시 보고 싶은 여행 코스로 자리잡는다”며 “세계 3대 불꽃축제로 꼽히는 몬트리올 국제불꽃축제, 일본 오마가리 불꽃축제,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 불꽃축제처럼, 서울세계불꽃축제도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한화 건설부문, 건설기계 안전체계 고도화

스마트 안전진단 장비 도입

한화 건설부문은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낙하물로 인한 ‘맞음’과 ‘떨어짐’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IoT 전문기업인 엔키아가 개발한 ‘WSS(Wirerope Safety Solution)’ 스마트 안전진단 장비를 타워크레인 핵심 부품인 와이어로프에 도입하고, 건설기계 전담 인력 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진단 장비는 와이어로프의 미세한 결함까지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이다. 와이어로프 반복 사용으로 인한 손상을 사전에 파악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기계를 멈추지 않고도 와이어로프에 간단히 부착해 사용할 수 있으며, 내장된 센서를 활용한 자기장 측정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단선까지 24시간 감지해 유용성이 높다.



한화 건설부문이 스마트 안전진단 장비를 활용해 와이어로프를 점검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은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AI 시스템은 와이어로프의 자기장 패턴을 종합 분석해 변형 여부와 교체 필요성을 즉시 진단하며, 결함 정도를 ‘주의·이상·경고’ 단계로 구분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와 함께 건설기계 전담 인력 교육도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건설기계 비파괴검사 이론 및 실습 ▲건설기계 전복사고 원인 분석 및 사고관리 방안 등 실무 중심의 현장 밀착형 커리큘럼이 포함돼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 참가자 모집

내달 18일 열려… 한 달간 접수 진행

빙그레가 ‘제38회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를 오는 10월 18일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그림잔치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참가 어린이들이 행사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페이스페인팅, 태권도 공연, 풍선 마술 공연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빙그레 포토존을 설치하고 플라로이드 촬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행사를 위한 캠페인도 마련됐다. 플로깅 캠페인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에게 증정되는 빙그레 제품 선물세트도 리사이클링 소재로 제작된 에코가방에 담겨 증정될 예정이다.

참가 접수는 빙그레 어린이 그림잔치 홈페이지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 경기 포천시 △ 기업지원과장 윤송재 △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김병섭
- ◆ 기획재정부 △ 과장급 인사 △ 법사에 산과장 감미자 △ 국방예산과장 박진호
- ◆ 통일부 △ 과장급 전보 △ 통일미래추

- 진과장 유기봉 △ 통일기반조성과장 장진국 △ 북한인권기획과장 손송희
- ◆ 외교부 △ 외교통신담당관 송상철
- ◆ 헌법재판소 ◇ 선임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

/이청하 기자 mlee236@

Time to Chill with
AMERICCINO[❄]



❄ 아메리치노 크러쉬
Americcino Crush

❄ 아메리치노 밀키크러쉬
Americcino Milky Crush

카레의 황금빛 마법, 강황



연 윤 열 의
푸드톡

카레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색깔이 진한 노란빛이다. 식욕을 자극하는 이 황금색은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동시에 주목하는 건강의 상징이다. 그 중심에는 바로 강황이라는 향신료가 있다.

강황은 초본식물 쿠르쿠마 롱가(Curcuma longa)의 뿌리줄기를 말린 것이다. 쿠르쿠마는 ‘노란색’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왔다. 선사시대에 인도에서 짙은 노란색 색소를 얻기 위해 처음 재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강황의 주된 색소인 커큐민은 생리활성 물질로 탁월한 항산화 효과가 있다.

강황 뿌리의 약 3%를 차지하는 이 성분은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심장 건강, 기억력 향상, 면역력 강화, 심지어 우울증 개선과 노화 지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커큐민은 염증 유발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면

역세포인 T세포와 B세포를 조절해 감염 퇴치에도 기여한다.

커큐민이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인도에서는 생선과 음식을 요리하기 전에 먼저 강황가루를 뿌린다. 커큐민의 색깔은 pH에 민감해서 산성 조건에서는 노란색을 띠는 반면, 알칼리 조건에서는 주황색으로 변한다.

강황은 쓴맛과 더불어 매운맛과 약간의 흙 냄새가 나는데 이는 테르펜 종류인 투메론과 진지베렌에서 기인한다. 투메론은 뇌세포의 재생을 돕고 신경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예방에도 잠재적인 가능성을 나타낸다. 커큐민은 뇌의 신경영양인자(BDNF)의 수치를 높여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커큐민의 낮은 체내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커큐민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체내에 흡수 되더라도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에 단순히 카레에 강황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효능을 충분히 얻기는 어렵다.

독자들에게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비법을 공개한다. 첫째, 커큐민은 지

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코코넛 밀크나 올리브유를 활용한 요리에 강황을 넣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둘째, 강황의 ‘단짝 친구’는 바로 검은 후추다.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커큐민이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흡수되도록 돕고, 분해 속도를 늦춰준다. 커큐민 2g과 피페린 20mg을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무려 200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셋째, 강황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따뜻한 음식에 넣으면 향이 더욱 살아나고, 흡수율도 높아진다.

물론 강황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유불급이 된다. 임산부는 약효 수준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고,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빈혈이 있는 사람은 과다 섭취를 삼가야 한다.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 위산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역시 강황 섭취 전 의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기술사,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사)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식량안보연구센터장

부동산 ‘당근과 채찍’



기자 수첩
전 지 원
(금융부)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만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초대형 공급카드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임대사업자대출 전면 금지 등 고강도 규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근’과 불법 거래 차단·대출 억제로 투기 수요를 틀어막겠다는 ‘채찍’을 한꺼번에 내민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못박았다. 최근 3년 평균 15만 8000호 대비 1.7배 늘어난 수치다. 공급 통계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한 것도 현실과 괴리를 줄이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을 용적률 500%까지 높여 재건축(2만3000호)한다. 유휴 국공유지·청사 부지·폐교도 주택으로 전환한다. 틈새 땅을 쥐어짜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지역 LTV는 50%에서 40%로 축소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됐다. 공급 확대와 동시에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기준을 착공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LH의 직접 시행은 분양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채감 공급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지적

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과인더전문위원 역시 “외곽 위주 공급으로는 강남·용산 등 핵심 수요를 잡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으로 불법 거래 차단 장치를 강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부동산시장관리원과 같은 수준의 위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것 처럼 단순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특별사법경찰, 경찰과 공조해 기획부동산·허위매물·다운계약 같은 불법행위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신고 단계부터 계약서와 자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가 한몸처럼 묶여 있어 그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공급과 규제, ‘당근과 채찍’이 시장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jjw13@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6일 (음 7월 2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말려놓은 생선을 고양이가가져가는 일진. 48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60년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가만히. 72년생 이직이 만수무강이 아닐 것이다. 84년생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는 더 빠르다는데.



37년생 평평 쓰다카는 조만간 고립무원 신세. 49년생 친구가 찾아와 저녁을 같이한다. 61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렸다. 73년생 언제 저축 하냐고 묻지 말고 오늘 적금을 들도록. 85년생 원숭이띠와 말다툼하지 말도록.



38년생 해지기전에 집안 거미줄을 걷어내고 말곰히. 50년생 돈이 없으면 외로운 신세가 되는 것. 62년생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다. 74년생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내야 하니 계획을 세우자. 86년생 평생약속을 잘 지켜서 오늘을 일구었다.



3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백화점은 다음으로. 51년생 학벌보다는 전문성으로 지켜나가자. 63년생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75년생 연금에 꼭 들어서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도록. 87년생 겹집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40년생 경제적 자립도를 위해 기술을 배우자. 52년생 씩씩하고 적극적으로 행동. 64년생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6년생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축부터 시작. 88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 말고 지금 현실에 노력할 것.



41년생 고생 끝에 자식이 공사시험에 합격. 53년생 과다한 지출로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65년생 냉정고를 바꾸니 집안 분위기도 환해진다. 77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89년생 맞서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으니 한발 양보를.



42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우선 노력을 해라. 54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에 주의. 66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78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90년생 길게 보면서 자신에게 투자해야 불행을 면한다.



43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보는 것이. 55년생 바꾸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말자. 67년생 남의 협담은 하지 않는 것이. 79년생 현재 직장이 싫다면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일 것. 91년생 주다 보면 형제가 본인에게 부채가 될 수도 있음이다.



44년생 영업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인가 정확히 계산해보자. 56년생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하라. 68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이. 80년생 지금부터 연금을 챙기고 꾸준한 저축을 시작. 92년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은 지켜야만.



45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57년생 내가 참으면 끝날 말다툼이니 참는 것이. 69년생 물가상승으로 시장바구니가 가벼워진다. 81년생 자주 이직을 하면 먹고물이 멎어질 날이 있겠는가. 93년생 노후파산은 법적인 용어이나 내게도 현실일 수가.



46년생 투자는 허무하게 돈이 사라지니 주의를. 58년생 자산형성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70년생 40세가 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끌리지 않는다는 불혹. 82년생 효를 실천하면서도 저축은 늘려야할 것. 94년생 자신의 소신을 행동으로 바꾸어야.



47년생 자식을 과보호할수록 무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59년생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미래의 사랑에 목숨 걸겠는가. 83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반드시 있게 마련. 95년생 긍정적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보도록.



김상회의四季 칠석 별자리

우리 조상 대대로 좋아하는 별은 아무래도 북극성이며 북두칠성이다. 과학적으로 단순히 지구 북반구 하늘에서 더 잘 보이는 별자리로 취급하는 북두칠성이지만 북반구의 반대편 쪽에서도 북극성은 비슷하게 잘 보인다. 길 잃은 항해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길잡이인 길성 중에서도 길성이다. 북두칠성의 일곱 별자리에 각각 이름을 붙여 자손의 점지와 수명과 복덕을 구하였듯, 매월 칠 일마다 칠성 기도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특히 칠월 칠석날만큼은 모두 절로 달려가 칠성각에 간절히 발원을 올렸다.

필자의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어둑새벽에 할머니가 장독대에 정한수 정갈하게 떠 놓고 정성을 다하여 빌던 모습을 종종 보았다. 할머니가 빌곤 했던 내용이 결국은 식솔들의 안녕과 무탈함이었다는 것은 굳이 말씀이 없으셔도 알 수 있었다. 칠월 칠석날에는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번 해후하는 날이다. 견우성과 직녀성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깝게 위치하게 되는 것이 칠월칠석이기에 칠성 기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별들이다. 특히 선조들에게 있어 칠월칠석날은 전래 동화의 의미처럼 견우와 직녀의 슬픈 사랑 얘기가 다가 아닌, 북두칠성 휘하의 직녀성을 섬기는 날이다. 좀 더 구체적인 전례를 찾아보자니, 여름 하늘의 견우성(다비흐 또는 알타이르)과 직녀성(베가) 그리고 은하수가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전설이기도 하다. 직녀성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삼신할머니라 부르는 마고(麻姑)와 마고의 두 딸인 궁희(穹姬)와 소희(巢姬)의 별로 알려져 있다. 이 세 별자리는 그 에너지 자체가 자손의 점지와 수명장원을 관장한다고 믿어 왔다. 칠성 신앙은 도교적인 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도교는 그 원류가 천지 자연학인데 이는 해와 달과 별이 펼쳐지는 우주관을 반영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5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컬러스도쿠110

초·중·고·대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미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9	5	6	8	2	1	7	8
6	7	8	2	9	1	5	2	8
1	8	7	8	9	6	2	1	9
9	2	1	8	7	8	6	2	1
5	2	7	8	9	6	8	1	9
8	6	8	9	2	1	7	1	9
7	9	6	1	2	8	9	8	2
8	9	2	1	7	1	2	9	6
2	1	2	9	6	8	8	9	7

8	2	6	2	1	9	8	7	9
2	7	9	8	9	1	6	2	8
1	9	9	2	7	8	2	6	8
2	1	7	6	8	2	9	8	9
9	8	2	7	1	6	9	8	1
6	8	8	1	9	9	2	2	7
8	6	1	9	2	7	1	9	2
7	9	2	8	6	8	1	9	2
9	2	8	9	8	2	7	1	6

학자금대출 못 갚는 청년 2만명 연체액 1100억, 3년 새 250억 ↑

한국장학재단, 연체 현황 공개
3년 만에 4300명 늘어 급증세
등록금 인상에 대출 수요 확대
제도개선 필요성 국회서 제기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2104명으로, 2022년 1만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



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1조2352억), 취업 후상환 20만6522명(8762억)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산학협력 마일리지 우수기업 50곳 발표

교육부·대한상의, 산학협력 성과 공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5일 ‘2025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되며,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교육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적합한 마일리지는 정부 지원 사업 공모 시 가점 획득,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응시료 일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우수기업의 주요 선정 기준은 산학협력 실적 점수(마일리지)이고 그 외에도 산학협력 활동 분야의 다양성,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령 등의 저촉 여부 확인 및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학생 채용 분야 실적이 높은 바디텍 메드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제조 업체로, 한림대, 강원대 등 강원 지역 대

학과 협력해 바이오·화학·빅데이터·경영 등 다양한 전공별 현장실습·인턴십을 통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화장품 개발·제조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도 2015년부터 대학의 화장품 분야 연구·품질·제조 관련 학과와 함께 현장실습을 운영하며 우수인재를 채용한다.

산학협력 장학금 분야 실적이 높은 사단법인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에 매년 산학협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뚜기함태호재단은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을 위해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61명에게 총 9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매년 대학의 식품 발전 관련 연구·출판 과제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총 118명에게 11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25년 상반기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8개교 학생 378명이 참여한 학점 인정 현장실습을 운영했고, 특성분석·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에너지·환경·바이오·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과 기업에 고성능 분석·공정·실험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산·학·연 공동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 ‘원팀’ 본격화

25개 자치구와 첫 협력 워크숍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청 이관
현장·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16일 25개 자치구와 처음으로 ‘유보통합 공감소통워크숍’을 열어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둔 현장·자치구·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교육청과 자치구청 간 협력의 첫 공식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서울시청과 이관 대비 협의체 및 준비 협의회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협력해왔으나, 자치구청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는 부족했다.

이에 지난해 ‘찾아가는 자치구청 설명회’를 통해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시청 영유아 보육 사무 분석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청 사무 분석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제도적 경계를 해소해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써 교육청으로의 이관은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체계안

에서 영유아 교육력 강화는 물론, ▲중복 업무 해소 ▲행·재정 지원의 일원화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현황 안내, 정선아 숙명여대 교수의 ‘유보통합과 지방자치(영유아 중심에서 협력하기)’특강, 교육지원청·자치구청 실무자 간 소통·협력 활동, 서울시교육청 2025년 특색사업(교사대 영유아 비용 개선, 교육·돌봄 환경 개선, 책놀이 프로그램) 안내, 영유아보육 집중분석 추진 현황 및 계획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IT·돌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도입

외국인 E-7 비자 추천제 신설

경기도가 IT, 돌봄 등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경기도 맞춤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도는 15일부터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경기도지사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무부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설계됐으며,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고 외국인은 장기 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 직종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 전문직(E-7-1) 11개와 요양보호사(E-7-2) 1개 직종 등 총 12개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최대 630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자는 학력·경력 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전문인력별 자격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서울 첫 친환경 ‘한강버스’ 18일 출항

마곡~잠실 7개 선착장 연결 운항

서울의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수단 ‘한강버스’가 18일 첫 운항을 앞두고 안전과 서비스 등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안전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위한 3개월간의 시민 체험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 마곡에서 망원, 여의도, 옥수, 압구정, 뚝섬, 잠실

7개 선착장, 총 28.9km를 운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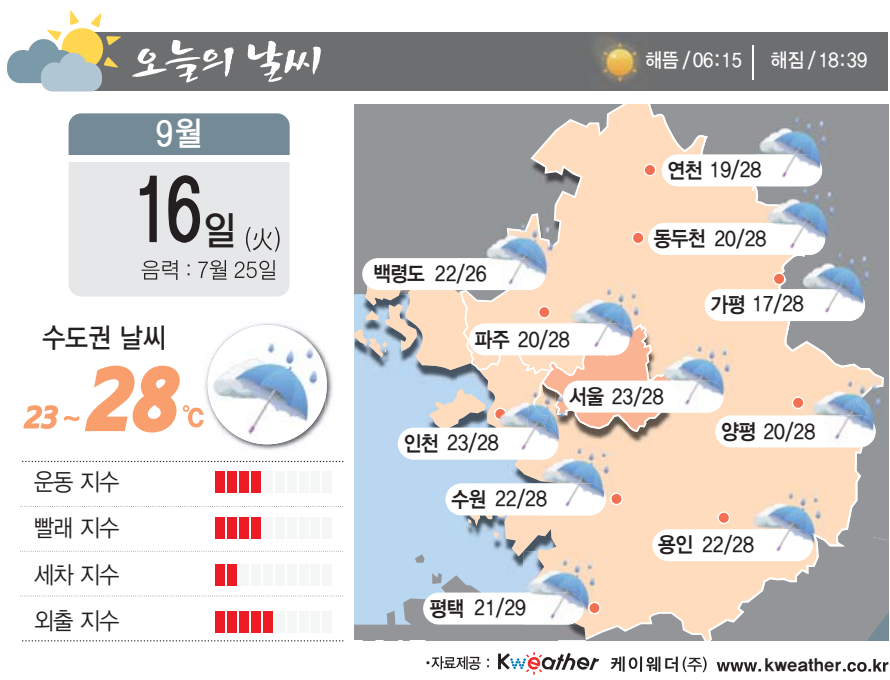
총 8척의 선박이 운항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 운항

예정이다.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주말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이며, 시민 눈높이와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말 이후에는 선박 4척을 추가로 인도해 연내 총 12척, 48회로 확대 운항한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며,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횡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단,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獨기민당, 최대재 지방정부 수성… 극우 AfD 서부서 약진
▲“CEO들, 노동자의 600배 벌어”… 교황 ‘조만장자 머스크’ 질타

/사진 뉴스스

▲러시아 북서부 키리시 정유소, 우크라 드론 공습에 화재
▲“탈탄소화 어려움 인식”… EU,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 재검토

▲정부 자본규제 과도“… 스위스 UBS은행, 美로 본사 이전 검토
▲인도산 수입품 50% 트럼프 관세 폭탄에… 美, 소상공인 ‘직격탄’



농심
케데헌 효과에
글로벌 반등 신호탄
L1

metro®

Life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경쟁 치열
상업화 속도
L2



어른들의 추억, 아이들의 미래로... 잔디 위 '꿈의 축제' 열다



넥슨

넥슨이 '아이콘매치2025'를 통해 유소년 축구 지원과 세대 교류를 확대하며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다. 자사 대표 축구 게임을 기반으로 마련한 이번 무대는 단순한 팬 이벤트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젝트 '그라운드.N'과 연계해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기회를 넓히고, 세대와 문화를 잇는 축구 축제를 현실에서 실현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게임회사가 마련한 대규모 이벤트, 아이콘매치2025

넥슨이 개최한 아이콘매치2025가 지난 13~14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월드컵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며 막을 내렸다. 전날 이벤트 매치에는 3만8426명이 입장했고, 14일 본 경기에서는 6만여 석이 전부 매진됐다. 이틀간 10만 명이 몰리자 "게임사가 마련한 무대가 이처럼 큰 사회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는 반응이 현장에서 나왔다.

경기장 밖은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축구 유니폼을 입은 청소년, 부모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 해외에서 원정 온 팬들까지 다양한 국적과 세대가 모였다. 일부 팬들은 '#아이콘매치2025' 해시태그를 달고 현장 인증 사진을 올리며 SNS를 달궜다.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은 함성으로 가득 찼고, 스타 선수들이 몸을 풀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호나우지뉴가 특유의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따돌릴 때, 웨인 루니가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강력한 중거리 슈트를 시도할 때, 티에리 앙리와 디디에 드로그바가 호흡을 맞추며 전진할 때마다 경기장은 폭발적인 환호에 휩싸였다.

2000년대 세계 축구의 상징적 장면들이 눈앞에서 재현되자 관중들은 "이 장면은 게임 속 카드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외쳤다.

아이콘매치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 속 아이콘들이 실제 경기장에서서는 경험을 구현했다. 그 자체가 문화적 상징이 됐으며, 현장은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변모했다.

◆유소년 축구 지원과 사회적 가치

넥슨이 이번 아이콘매치를 통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회사는 몇 해 전부터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젝트 '그라운드.N'을 운영하며 한국 축구 생태계의 저변 확대에 공을 들여 왔다.

그라운드.N의 핵심 프로그램인 '스토브리그'는 겨울마다 열리는 집중 훈련 캠프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이콘 매치2025'에는 6만여 명의 관중이 몰리며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경기장 외부에 마련된 '아이콘 파크' 체험존에서 한 시민이 체험을 하고 있다.



2-1로 승리한 실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뉴스스

자사 축구게임 기반 '아이콘매치' 개최 단순한 이벤트 넘어 사회적 가치 구현

유소년 축구 지원 '그라운드.N' 연계 어린 선수들에 세계축구 경험 기회

세대·국적·문화 아우르는 교류의 장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로, 국내 초·중·고교 선수들이 참가해 체력 강화와 기술 훈련, 전문 코치진의 멘토링을 받는다.

2025년 열린 4회차 스토브리그에는 해외 유소년 팀까지 초청해 국제 교류전을 진행했다. 어린 선수들이 세계 축구를 직접 경험하고 또래들과 경쟁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게임에서 보던 스타들을 현실에서 만나고, 동시에 직접 훈련 기회를 얻는 경험이 큰 자극이 된다"고 말했다.

넥슨은 "지원금을 나눠주는 후원자 아니라 선수들이 몸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이

는 유소년 지원을 단순한 CSR(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는 ESG 활동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병무 넥슨 부사장은 "아이콘매치는 FC 온라인과 FC모바일을 사랑해준 팬들에게 보답하는 무대"라며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경험이야말로 넥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팬 이벤트로 보일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소년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에 기여하고, 세대 간 문화를 연결하는 점에서 넥슨의 행보는 ESG 경영의 사회(S) 영역과 맞닿아 있다. 기업이 게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아이콘매치는 ESG 전략의 일환으로 읽힐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세대 교류 가능성도

이번 행사가 단순한 흥행 이벤트가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축제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기장에는 젊은 게이머들뿐 아니라 은퇴한 스타들의 전성기를 기억하는 중장년층 팬들도 대거 몰렸다.

한 관객은 "아버지가 열광했던 선수를 아들과 함께 본다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눈에 띄

게 많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부모들이 추억과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경기장 외부에 마련된 '아이콘 파크' 체험존도 인기였다. 미니게임과 포토존, 굿즈 판매,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팬덤이 어우러졌다. 상암 일대 상권은 이틀간 몰려든 관중 덕에 활기를 띠었고, 숙박·교통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는 게임사가 주최한 행사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콘매치2025는 이처럼 게임과 스포츠가 결합한 새로운 문화적 실험이자 사회적 가치 창출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과제도 남는다. 유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구체적 연계, 관람객 접근성 확대가 향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흥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면 넥슨이 ESG 전략의 한 축으로 제도화할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

아이콘매치2025는 단순한 '게임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 실험'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게임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5강 싸움' 삼성-롯데, 정면승부... '선두 추격' 한화, 운명의 8연전 /사진 뉴스스
▲KPGA 노조 "부당 해고된 직원들 복직할 때까지 투쟁"

▲'양다리 스캔들' 사카구치 켄타로, 부산국제영화제 간담회 취소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 없다', 토론토영화제 국제관객상 수상

▲'韓 국가대표' 카스트로프 입지 반전 기대감, 소속팀 감독 '경질' 위기
▲'43연승' 전설의 엇박서 리키 해튼, 13년만 복귀전 앞두고 사망